

한국어 속의 문화 탐색 가이드북

Exploring Culture Through Korean Language Guidebook



09 한국의 예술 문화와 한국어

교수자: 김중섭	
1차시	도입 및 한국의 음악과 무용
2차시	한국의 미술
3차시	한국의 연극과 영화
4차시	한국 색채어의 문화적 의미
5차시	정리 및 마무리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강의 개요

주차명	한국의 예술 문화와 한국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예술문화인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색채어와 그 상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본인 나라와 한국의 예술문화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의방식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 인터뷰 촬영 ☐ 대화 촬영 ☐ 현장 촬영	
강의언어	☒ 한국어 ☐ 영어 ☐ 기타()	
자막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수어 ☐ 기타()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도입 및 한국의 음악과 무용	첫인사, 학습 목표 및 핵심 어휘 확인, 한국의 음악과 미용 세부 내용
2	한국의 미술	한국의 미술 개요, 대표적인 화가 및 작품, 관련 영상 확인
3	한국의 연극과 영화	한국의 연극과 영화 개요, 대표적인 배우 및 작품, 관련 영상 확인
4	한국 색채어의 문화적 의미	한국 색채어의 전통적 관점, 관련 영상 확인
5	정리 및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 다음 주차 예고
학습 활동	☒ 동영상 강의 ☒ 읽기 자료(pdf 등) ☒ 퀴즈 등 연습문제 ☒ 토론/토의 ☐ 시연 및 현장 방문 ☐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 개인 과제 ☐ 협력 과제 ☒ 기타(시청각 자료)	



한국어 스크립트 | Korean Script

1차시 | 도입 및 한국의 음악과 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멋과 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한국의 문화의 특징으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는 옛 것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공존합니다. 그 예로 지난번에 한국이 시대에 맞춰 개량한복으로 바뀌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멋으로는 한복, 한옥, 전통공예를 배웠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복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복의 특징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몸에 꼭 끼이지 않는 여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한복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한국의 전통공예, 사군자,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백자도 배웠습니다. 또한 목조 건물에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구조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관상의 미를 돋보이게 하는 단청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맛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 불고기에 대해서 배웠고, 또 김치에 대해서는 김치의 다양한 종류를 보통김치와 저장김치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불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수업에 이어서 추가된 자료나 배웠던 내용과 관련 학습을 여러분 많이 공부했습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추가 학습 자료들도 모두 살펴보았죠?

그럼 오늘은 한국의 예술문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술문화 속에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예술문화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과 핵심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색채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라의 예술문화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단어, 어휘죠.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악, 국악.
양악, 양악.
장단, 장단.
판소리, 판소리.
가무백희, 가무백희.
회화, 회화.
서예, 서예.
샛노랑다, 샛노랑다.
시뵈경다, 시뵈경다.

여러분, 한번 이 어휘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 하면서 머릿속에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국악
양악
장단
판소리
가무백희
회화
서예
셋노랑다
시뻘경다

그럼 먼저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음악을 크게 국악과 양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악은 오랜 시간 내려온 전통 음악을 말하고 양악은 1900년대 이후에 유입된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 음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국악과 양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국악은 궁중의식음악, 종교음악, 정악, 민속음악, 창작음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의 특징은 선율, 장단, 또 구조적인 형태 등 관련 특징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율은 중국이나 서양 음악과는 달리 3, 4, 5로 구성되어 있고 장단면에서는 국악은 3박자 계통의 리듬이 많습니다. 또한, 장단을 던져 놓고 자유 리듬으로 연주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특히 한국 음악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 것이 ‘한배’라는 음악 형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민요에서 느린 노래와 빠른 노래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배라고 합니다. 한국 음악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특히 국악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즉흥연주를 말합니다. 즉흥연주라는 것은 옛날부터 한국 사회에서 행해진 연주와 그 연주로 빚어진 노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더늌’이라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더늌’은 판소리에서 본래의 소리 바탕에다가 자신의 소리를 더 짜 넣어 소리를 확대, 변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늌. 또한 산조 연주자들이 스승의 가락에 자신의 것을 첨가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다듬어서 자신의 유파를 형성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은 궁중이나 양반층에서 향유하는 정악과 백성들이 즐기는 민속악으로 나뉘었습니다. 정악, 민속악. 정악에는 왕궁에서 제사 지낼 때 연주되던 종묘제례악이 대표적인데요. 민속악에는 민요, 판소리, 풍물농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악이나 민속악을 기억하고 또 종묘제례악, 그리고 민요, 판소리, 풍물농악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나 현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악기로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이 있으며 관악기로는 대금, 통소가 있습니다. 타악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북, 장고, 징, 팽과리 등이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기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문고, 가야금, 해금, 그리고 대금, 통소, 그리고 북, 장고, 징, 팽과리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악의 장르와 악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악 중 주요 기악으로는 종묘제례악, 대취타,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대금 정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현대국악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물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물은 불교의 식 때 쓰이는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의 네 악기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암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을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법고, 운판, 묵어, 범종

이런 네 가지의 불교의식 때 사용하던 사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북, 장구, 징, 팽과리의 민속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과 놀이를 바로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물놀이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로 네 가지 악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북, 장구, 징, 팽과리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따라 해 보십시오.

북, 장구, 징, 팽과리

1978년 ‘공간사랑’에서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 이광수 등 4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 각각의 악기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사물놀이가 시작되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물놀이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험을 한번 해 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들은 경기, 충청 지방의 웃다리 풍물과 우도굿, 그리고 영남의 삼천포 12차 농악 등 세 가지 풍물굿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무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당굿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그다음은 설장구 가락에 대해서 연구한 세 가지를 정교하게 접목시킨 풍물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팽과리 소리는 천둥, 징 소리는 바람, 장구 소리는 비, 북소리는 구름에 빗대어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사물놀이의 소리는 흔히 우리가 폭풍에 빗대어 말합니다. 현재 이 사물놀이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한국적 음악과 장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사물놀이를 보고 들으면 절로 흥이 나고 신명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물놀이는 한국의 독특한 음악으로써 점점 더 세계화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성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성악. 국악 중에서 성악으로 볼 수 있는 장르는 민요, 잡가, 가사, 시조, 판소리, 단가와 창극, 가야금 병창 등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데, 좀 어렵죠. 이 중에서 민요, 잡가, 가사, 시조, 판소리는 문학의 장르면서도 동시에 가곡으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민요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면서 민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민속노래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리랑, 제가 알기로는 한류스타인 BTS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아리랑’은 또는 그와 비슷한 발음의 어휘가 들어가 있는 후렴을 규칙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부르는 한 무리의 노래를 일컫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을 비롯해서 한반도와 해외 한민족 사회에서 널리 애창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 또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태백산맥이 있는데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한 아리랑은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민요인 아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서울의 직업적인 소리꾼들이 부르는 대중민요 아리랑이 나타났고, 그들이 부른 대중민요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유행하게 되면서 대중민요 스타일의 또 다른 아리랑들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한편 아리랑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두루 확산되어 국내는 물론 나라와 고향을 떠나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의 노래가 되어서 한국 내, 또 한국외, 국외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케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이민을 간 약 750만의 한국인들이, 우리가 주로 이들을 재외동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리랑을 부르고 알고 있어서 이 아리랑은 하나의 디아스포라 문화로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아리랑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후렴구만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부를 수 있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 받아서 2012년 12월 5일에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던 것입니다. 네, 아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쉽게 또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판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 북을 치는 사람인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그러니까 소리를, 말, 아니리, 또 몸짓, 너름새를 섞어가면서 구연을 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입니다. 이 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페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혼자 하는 노래입니다. ‘판소리’는 이 ‘판’과 ‘소리’의 합성어죠. ‘소리’는 ‘음악’을 말하고 ‘판’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는 ‘상황과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판소리가 본래 여러 가지 놀이와 함께 판놀음으로 공연된 것으로, 판놀음이 있었던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대 집단에 의해서 시작된 판소리는 소리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층의 삶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판소리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서 판소리를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들은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소리는 다양한 전통 예술로부터 필요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어의 표현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민족적인 표현방식으로 인류 보편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예술로 승화시켜 한국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판소리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한국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에 제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화제를 바꿔서 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용을 좋아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용은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 온 무용 일체를 가리키며, 이밖에 한국의 미형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창작 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무용 중의 범무, 민속무용, 신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범무는 ‘승무’라고도 하고 있고, 불교의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계속 전승되어 왔습니다. 현존하는 불교무는 법고춤, 바라춤, 나비춤 등이 있으며,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서 추는 춤이 아니고 유장한 범패 가락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 다른 춤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속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속무용이란 민간생활 속에서 민속놀이의 성격을 띤 것과 민간의 전문연예인들 사이에서 전승된 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속놀이로서 민속무용에는 전라도 지방의 ‘강강술래’, 경상도 지방의 ‘넙다리밟기’, 또 ‘농악무’, 또 전문적인 민속 무용으로는 ‘살풀이’, ‘승무’, ‘한량무’, ‘노장무’, ‘탈춤’ 등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춤의 종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읽고 암기해 두면 좋겠습니다.

강강술래
넙다리밟기
농악무
살풀이
승무
한량무



노장무 탈춤

여기에서 아마 탈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탈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춤에는 경기지방의 ‘양주별산대놀이’가 있고요. 또 ‘송파산대놀이’가 있습니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봉산탈춤’이 있고, 또 ‘강령탈춤’, ‘은율탈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 ‘북청사자놀이’, ‘꼭두각시놀음’ 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탈춤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용이란 현대무용의 사상에 의거해서 오늘의 한국적 시대정신과 감각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무용미를 추구하는 무대예술의 한 장르를 말합니다. 오늘까지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는 무용에는 ‘화관무’, ‘장구춤’, ‘부채춤’ 등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무용 종류에 대해서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화관무 장구춤 부채춤



2차시 | 한국의 미술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미술'이란 시각적인 미를 가진 모든 유형의 예술을 말하는데요. 즉, 미술에서는 회화, 건축, 조각, 공예 같은 분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어 어휘인 회화, 건축, 조각, 공예 이런 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미술에는 추상적인 성향과 자연주의적 성향이 공존해 왔지만, 현재에 오면서 추상적인 성향보다는 자연주의적 성향이 기본으로 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성향은 기호, 선을 돌이나 벽에 표현하는 그림, 또 원시시대 토기 및 조각 같은 곳에 기호와 선을 그려 넣는 것에 나타나고 북방계통 문화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주의적 성향은 여러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모양보다는 간결하고 다른 것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며, 인공적인 것보다는 무늬, 무상,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조화롭게 사는 낙천적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렵시대에 벽에 동물을 그리거나 토기에 선을 넣어서 그리는 미술 성향과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위대한 힘을 표현하는 미술 성향이 있는데 두 성향이 공존하다가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미술 성향이 발달된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화, 그리고 서예, 조각, 공예 이런 정도로 꼽힐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화란 한국인의 손으로 그려진 회화를 총칭하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기법, 양식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한국 미술의 성격적 특징을 어휘로, 언어로 설명한다면 '소박, 해학, 친근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휘가 '소박, 해학, 친근미'. 보통 우리가 어휘로는 '소박하다, 해학적이다, 친근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휘로 '소박, 해학, 친근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화는 한지 종류인 순지, 또 화선지, 혹은 비단에 먹이나 물에 녹는 안료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모필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적 자연관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회화관과 화론에 입각해서 한국 특유의 양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화에 사용되는 한지는 닥나무로 만든 한국 고유의 종이죠.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생산된 한지는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통풍이 좋고, 보온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방음 효과도 있고, 매우 질기고, 자연 염색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지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었죠. 또한 일본을 비롯해서 수출도 해외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서예나 동양화의 화선지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공예품 제작이나, 연하장, 초청장, 족보, 불경 인쇄, 창호지 등으로만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용 범위가 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이 한지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어느 정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세계적인 한국 상품으로 보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지는 소중한 한국인의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삼국시대 이후라고 추정됩니다. 고구려 시대의 미술을 추측을 해보면 벽화에 남아 있는 수렵도라든지, 풍속도, 무용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한국인인 고구려인의 용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미술은 현재 경주시에 있는 '천마총'이라는 무덤에서 그려진 '천마도'라는 그림에서 한국인인 신라 사람들의 미술의 품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벽화, 수렵도, 천마도'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려 때는 불교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마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조



선 시대에는 불교 그림 외에도 백성들의 생활 풍속화가 다양하게 그려졌는데요. 이 한국의 전통 미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선시대의 것이 많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회화는 17세기를 경계로 해서 전후 2기로도 나누지만 3기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기는 15세기 초에서 16세기 중엽까지 화원의 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송나라 때, 원 나라 때, 중국을 얘기하죠. 중국의 송이나 원나라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한 시기로, 안견이라는 화가의 산수화가 대표적입니다. 중기는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까지 말하는데 한국화의 특색을 가진 화가 이정, 또 화가 윤두서 등이 적극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후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를 말하는데, 새로운 화법과 새로운 회화 사상이 탄생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회화는 훌륭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로의 한국화는 한국의 산천, 한국의 산과 강이죠.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상을 소재로 다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를 보면 정선이나 김홍도, 신윤복 등이 있는데요. 정선이라는 화가는 금강산의 실제 배경을 묘사한 진경산수로 유명합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조선 후기인들의 생활과 애환을 해학적으로 그린 풍속화의 대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화가인 '정선, 김홍도, 신윤복'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화는 전통성을 바탕으로 서양화 기법을 절충해서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기창 선생님이나 이숙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름난 화가가 아닌 무명의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그림을 '민화'라고 부르고, 이 민화가 미술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에서 일류화가에 버금가는 그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화. 여기서는 우리가 김기창 선생님 또 그리고 무명 화가들의 그림인 민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화의 매력은 쉽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속에 나타난 익살스러운 면, 또 희망, 믿음, 깨달음 등이 담겨져 있고 멋과 흥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화를 살펴보면 그 소재가 꽃, 새, 짐승, 뭐 짐승은 뭐, 소나 강아지들을 얘기하죠. 개나, 또 물고기, 아니면 그 시대에 일반 서민의 생활상, 또 풍습, 무속과 신앙, 교훈, 민중들의 정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예란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예술입니다. 서예는 주로 양반 계층에서 교양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서예는 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한자 자체가 표음문자가 아닌 상형문자의 원형을 그대로 지녀 왔고, 또 붓이나 먹이나 종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글씨는 그 자체가 조형적인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일찍이 한자를 예술적 감상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서예는 안진경, 구양순체와는 달리 중국의 원나라 말의 조자양체로 바뀌어 예술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김정희라는 대표적인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서, '추사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서풍을 개척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정희 선생님의 추사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궁체로 불리는 아름다운 한글 서체가 궁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공은 한국의 서예를 발전시킨 겁니다. 자는 '원춘'이라 하고요. 호를 '추사'라고 합니다. 혹은 완당, 예당. 추사 김정희는 호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알려졌다는 거겠죠. 처음은 안진경과 동기창의 서체를 모방해서 한동안 구양순체를 썼으나 차차 독창적인 서법을 개발했죠.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서법의 근원을 전한예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을 '해서'와 '행서'에서 응용을 했고, 전통적인 서법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서법을 시도해서 서예사에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는 근대적 미의식의 표현을 충분히 발휘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술적인 평가가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국조각의 기원은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골각기(석기 시대에, 동물의 뼈·뿔·이빨 따위로 만든 도구나 장신구)를 사용한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골각기가 실용적인 맥락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공예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조각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고,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불교를 수입한 이래 줄곧 불상조각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바로 불상조각, 특히 일본에 있는 호류사의 절에 보존된 ‘백제관음상’은 백제 조각의 우수성이 반영된 반가사유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가사유상

따라 해 보십시오.

반가사유상

이건 지금 일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산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라 불릴 만큼, 이, 부처의, 그, 얼굴에 띤 미소가, 특히 온화한 미소가 멋진데요. 이 부처와 관음보살의 그 미소가 띄워져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가사유상’은 각 나라의 미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 신라에서 제작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불교조각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요. 특히 삼국시대에는 불상과 불탑의 독특한 한국적 양식을 정립했고요. 7세기경 조성된 ‘미륵사지석탑’은 한국 석조탑의 시원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오층석탑’은 과도기적인 양식을 보여주며, 신라 문무왕이 창건한 ‘감은사지삼층석탑’에서 한국의 석탑의 전형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들이 조금 어렵지만, ‘반가사유상’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판을 새겼고, 그 뒤로는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활판 인쇄술도 아마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종 때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을 간행했는데요. 이것은 서양의 금속활자본보다 200년이 빠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즉 1377년 흥덕사라는 절에서 간행된 ‘직지심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장경판이라는 그, 목판 기술로 새긴 불경과 그리고 직지심경이라는 책,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죠. 이 두 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대장경판’, 다른 하나는 ‘직지심경’입니다.

현대 한국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조각은 1925년에 김복진 선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백화’, ‘소년’ 등에서 그리스 고전 조각의 품격을 한국의 전통 미의식과 결합시킨 선각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작품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아쉽죠. 그래서 보존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추상조각으로 김정숙 선생님, 김종영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김정숙 선생님은 대칭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서 자연대상으로부터 유추된 추상세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김종영 선생님 경우에는 순수조형 의지에 입각해서 매우 기하학적이고 단순 명쾌한 형태의 작품, 조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60년대 초까지 한국 조각은 구상적인 인체조각이 주종을 이루었는데요. 1970년대 들어와서 인체조각에서 볼 수 있는 ‘연극성’을 거부하고 작품을 온전한 물체이자 그것이 만들어 놓은 형태와 구조의 탐구를 지향하는 경향이 확산된 것입니다. 70년대의 환원적인 경향을 거치면서 80년대에 이르면서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청동 등의 전통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철, 합성수지, 기성품 등을 활용한 조각이 매우 활발하게 발표되었습니다. 내용과 형식 또한 다원화되는 양상이 당연히 발달되겠죠. 특히 조각 개념을 대체하는 설치



미술의 급부상과 함께 조각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 한국 조각의 새로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는 많이 있지만, 이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 조각가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은선 작가는요.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각가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고, 이게 그 문화훈장이 아닌 국민훈장을 받은 것은 예술가의 업적을 뛰어넘어서 외국에서 한국인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힘을 널리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 박은선 작가는 2018년에 이탈리아 프라텔리 로셀리라는 조각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예는 특히 한국에서 고대부터 우수한 공예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금속공예, 또 석공예, 통일신라의 많은 공예품은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고려청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세계적인 작품이죠.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청자의 본고장인 중국인들까지도 놀라게 했고, 특히 나전칠기의 걸작품이 현재까지 전 세계의 유수한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공예'라는 표현, 그리고 '나전칠기'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예의 영역이 매우 넓었지만 오늘날엔 상당히 좁아졌죠. 그리고 여전히 그 범위는 넓기는 한데, 기구 종류에서부터 감상하기 위한 고급 공예품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도자기'는 과거로부터 지금 인류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도구입니다. 도자기는 그 나라의 시대 문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기술과 예술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6000~7000년 전인 신석기부터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삼국시대 전기인 3~4세기부터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낸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도자기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고려식의 청자로 발전되어 나갔고 12세기에 이르러 유약은 좀 더 밝아지고 새롭게 정제된 음각이라든지 양각 문양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다 완숙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자기'라는 어휘, 또 '청자'라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청자가 주를 이루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점차 하얀색으로 문양을 그려 넣고, 유약이 담청회색으로 변했는데요. 이를 우리는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분청사기. 분청사기의 특징은 하얀색으로 문양을 그려 넣고, 또 아름다운 선의 흐름을 표현하게 되고 또 정밀하게 그리기 보다는 생략하고 변형시켜 단순화해서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얀 문양을 넣은 분청사기가 절정을 이루다가 이후에는 문양을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얗게 칠한 백자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청사기'라는 어휘라든지, '백자'라는 어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청사기, 백자. 한국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살펴보까요?

동영상 : 발칙한 한국화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4914>

3차시 | 한국의 연극과 영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연극과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연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시 고대 부족들의 제천의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한국의 국가였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마한이라는 나라의 오월제가 있고, 또 마한의 시월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여라는 나라의 영고는 12월에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수렵 또는 농경의례 성격의 기원제이자 감사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형욕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동맹과 무천도 이와 유사하게 10월의 제천의식으로 일종의, 요즘 같아서는 추수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고, 동맹, 무천', 이런 정도의 제천 의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고, 동맹, 무천.

이것이 바로 제천의식입니다. 마한의 오월제는 5월에 행했던 일종의 풍요기원제이고요. 시월제는 10월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 일종의 추수감사제로서 그 방법은 오월제와 같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연극을 삼국시대의 연극, 고려시대의 연극, 조선시대의 연극 그리고 현대 시대의 연극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삼국시대에는 각종 가무와 연희가 행해졌고, 이것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가무백희라고 했습니다. 즉, 고구려의 고구려악, 백제의 기악, 신라의 처용무 및 오기 등이 가무백희를 통합한 것인데요. 아직 음악, 무용 및 연극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연희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가무백희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면무극입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궁중나례에서 공연된 처용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용무라는 것을 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연극은 팔관회, 연등회 이런 국가적 행사가 있었고, 이때 의식과 오락의 두 가지 요소가 혼합돼서 산디놀이와 백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산디란 큰길가나 빈 놀이터에 단을 쌓고 무대를 만들어 노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면극입니다. 탈을 쓰고 풍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무언극 같은 몸짓, 또 노래, 재담 등을 곁들인 민속극입니다. 한편 탈, 즉 가면이죠. 주문을 외면서 악귀를 쫓아내는 행사인 나례 역시 연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화극적 요소인 조희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인, 광대 등 전통적으로 배우와 같은 부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산디놀음과 나례가 성행을 했고요. 조정에서는 외국 사신들의 접대를 위해서 산대도감까지 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산대도감은 폐지되었는데요. 현존하는 산디놀음 계통의 연희는 그것이 서민들에게 넘어간 이후의 가면극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경남 일대 오광대, 야류 등의 민속적인 가면극의 형태가 남게 됩니다.

현대의 연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문화와 함께 신연극으로 발전했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1910년을 전후해서 신파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파. 그 뒤에 1923년을 전후해서 '토월회'라는 극단이 만들어졌고, 이 극단에 의해서 '신극'이라는 이름으로 서구극의 도입과 더불어 연극 의식의 근대화를 도모한 연극들이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31년 극예술협회의 발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



대 이후에 재능 있는 신인들의 참여로 세대교체를 이룬 한국 연극은 극단 활동, 극장 건립, 극작가 배출, 비평활동, 배우 양성 등 여러 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극의 도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에 해마다 전국연극제가 열려서 대통령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여를 통해서 연극의 진흥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흥미를 위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연극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입니다. 선생님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이 연극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했던 논쟁을 연극의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징어게임> 들어봤죠? 이때 1번 참가자 역할을 맡은 오영수라는 배우가 기억납니까? 이 오영수 배우는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오영수 배우가 주연으로 참가하는 <라스트 세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뮤지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뮤지컬' 하면 영국이나 미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뮤지컬이 시작된 시기는 세계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1966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양 뮤지컬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창극이나 가극, 악극, 판소리 같은 전통 음악극 형식은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공연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문화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대중적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발전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최초의 창작뮤지컬은 무엇일까요? 바로 1966년에 예그린이란 악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짜기 읊서예>라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상당한 반응, 호응을 일으켰으며, 음, 지금은 은퇴를 하신 원로 가수죠. 패티 김이라는 가수가 부른 주제가 <살짜기 읊서예>, 이게 대중가요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립가무단에 의해 주도된 태동기를 거쳐 초창기, 1978년부터 한 1988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현대극장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혹은 시립극단의 <지붕위의 바이올린> 이렇게 본격적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번안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뮤지컬의 성장기인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상업뮤지컬을 이끌어온 '롯데월드 예술극장'이 있는데요. 뭐, <거울 속으로>, <라만차의 사나이>, <사랑은 비를 타고>, <명성황후>, <난타> 등의 창작 뮤지컬과 <브로드웨이 42번가>, <캣츠>, <페임> 등 일련의 수입돼서 번안된 뮤지컬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등 한국의 뮤지컬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뮤지컬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명성황후’는 조선시대 일본으로부터 암살을 당한 왕비의 이야기죠. 명성황후에 관한 뮤지컬이고. 1996년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등 여러 상을 받았고, 런던 웨스트엔드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런던 웨스트엔드라든지, 뉴욕 브로드웨이는 대표적인 뮤지컬을 만드는 장소죠.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뮤지컬인 <렌트>, 또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들이 대형화, 현대화의 추세로 발전을 보이면서 뮤지컬 확장기라고 얘기하는데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알려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초의 한국 영화로 공인되는 것은 1919년 10월 27일 김도산이라는 분이 이끌던 신극좌가 무대 공연과 스크린 상영을 혼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연쇄극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최초의 본격 상설 영화관에서, 즉 단성사인데요. 지금은 아마 단성사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 단성사에서 공개된 <의리적 구토>는 연극 막간에 삽입된 스크린에 영사되는 방식으로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는 김영환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장화홍련전>, 윤백남 감독의 <운명전>, 이경손 감독의 <심청전> 등 고전 작품을 주제로 해서 율



긴 것들이 많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의 자생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뿌리를 이룬 것은 한국 민족의 영화였습니다. 즉, 민족 영화였습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랑’이라는 노래 들어봤죠? 나운규 감독에 의해서 <아리랑>이라는 한국 영화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을 기점으로 한민족의 자존, 항일 저항 의지를 표현한 일련의 작품들이 이어졌고요. 193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주의적, 계몽주의적 경향이 영화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는 스튜디오와 녹음 시설을 갖춘 제작사들이 중심이 돼서 영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1940년대 들어서 ‘조선영화통제령’ 등 일제의 통제 정책에 의해서 영화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의 흥행 성공으로 정부는 영화 산업 부흥책을 내놓았고 제작도 붐을 이뤘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영화 산업 부흥책도 내놓았고 제작의 붐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중반부터 제작 편수가 놀랍게 신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감각을 익힌 젊은 감독들의 등장과 함께 작품의 경향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한국 영화의 변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를 타고 한국 영화의 뉴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감독들이 출현한 것도 이때인데요. 소위 기획영화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기획 영화의 등장은 한국 영화 산업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고 당대의 트렌드에 밀착해서 대중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소재를 발굴하면서 한국영화의 거대한 줄기를 1990년대 이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영화의 질적, 양적인 성장은 물론,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극장의 환경의 변화, 대규모 배급 시스템의 정착,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맞물려서 한국 영화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 영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나온 한국 영화는 1999년의 <쉬리>, 2000년도의 <공동경비구역 JSA>, 2001년의 <친구>, 2002년의 <조폭마누라>, 2003년의 <살인의 추억>, 2003년의 또 <실미도>, 2004년의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초특급 히트작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이 같은 산업의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는 칸 국제 영화제에서 <취화선>으로 임권택 감독이, 이때 2002년도라고 기억되는데요.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올드보이>로 2003년에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대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감독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데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특히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계급과 계층 간의 단절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19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한국영화 100년사에 큰 기여를 이뤄낸 데 이어서 2020년 2월에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아주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정이삭 감독의 작품입니다. 재미동포죠, 정이삭 감독. 1980년대 중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아칸소주의 농장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영화는 2020년 2월에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고, 미국 내 각종 비평가협회에서 연이은 수상을 한 아주 좋은 작품이죠. 60개가 넘는 수상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영화연구소 AFI가 선정하는 2020년 올해의 영화' 중 한 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열린 제78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며 큰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영상 : 영화의 도시에서 한국 영화를 만나다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3841>



4차시 | 한국 색채어의 문화적 의미

이번 시간에는 색채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색채어라는 것은 빛깔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순 우리말에 해당하는데요.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색채어의 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영국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청’과 ‘녹’, ‘blue’와 ‘green’ 등과 같이 두 단어로 분절되어 지시되는 색의 덩어리로 한국어에서는 ‘푸르다’라는 한 단어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산도 나무도 푸르고, 강도 바다도 푸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푸르다’를 알 수 있겠죠. 한국의 고궁이나 사찰에 가면 눈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왜냐고 하면, 한국의 여러 가지 색채를 만날 수 있죠. 기와부터 지붕까지 화려한 색채의 단청, 기둥과 창호의 색까지 모두 한국의 색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색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바탕을 둔 오정색, 적, 청, 황, 백, 흑, 오간색, 홍, 벽, 녹, 유황, 자 이렇게 10가지 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색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색채보다는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양의 음양오행적 우주관은 색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모두에 바탕이 됩니다. 음양은 우주를 형성하는 큰 원리이고, 오행은 음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무, 불, 흙, 쇠, 물의 다섯 가지 원리로 오행을 풀이합니다. 이 음양오행적 색채 체계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오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방에 해당하는 5가지의 정색과, 각 정색 사이에 있는 5가지의 간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음양오행에서 다섯 가지 순수한 기본 색을 정색이라 하고, 이 정색과 정색의 혼합으로 생기는 색을 간색이라고 합니다. 정색에는 동쪽의 청색, 서쪽의 백색, 남쪽의 적색, 북쪽의 흑색, 중앙의 황색 5가지 색으로 되고요. 간색에는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 사이의 벽색, 남방의 적색과 서방의 백색 사이의 홍색,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 사이의 유황색,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 적색 사이의 자색으로 총 5가지의 색이 있고 총 10가지의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맑고 담백한 색채를 사용했고, 한국의 사찰이나 고궁에는 이 단청에 나타나는 자연에 동화되는 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맑고 밝은 색의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의 색의 이미지는 자연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색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맑고 담백한 한국의 색채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단청이 있는데요. 건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그림이나 여러 무늬들을 그려서 색칠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정색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오행에 맞추어서 칠하는데요. 파랑은 나무, 빨강은 불, 노랑은 흙, 하양은 쇠, 검정은 물을 의미하고요. 여기 계절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파랑이 봄, 빨강이 여름, 하양이 가을, 검정이 겨울, 노랑이 환절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행설을 따라 그려지는 단청의 아름다움에는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서 좋은 기운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청색은 방위로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계절로는 만물이 생성하는 봄에 해당하며 청정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행 중에 목으로서, 나무쥬, 하늘과 무성한 식물 등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청색은 적색과 함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적색은 방위로는 온화하고 만물이 무성한 남방, 계절은 여름에 해당하고, 오행 중 화로서는 태양, 불, 피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적색은 생명력이 충만한 색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색으로 인식되고 있고 인체의 심장, 오관의 혀, 맛의 쓴맛에 해당된답니다. 청색과 함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색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의-식-주 생활 속에 주술적인 용도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색은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되며 사계절 모두에 연관되어 오색 중 가장 고귀

한 색으로서 통치권자인 임금만이 황색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황색은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색은 가을에 해당되고, 서쪽과 연관되고 있고, 순결, 청렴 등을 상징합니다. 백색은 한국인의, 특히 조선 사람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삼국시대부터 애용되어왔는데요. 백색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흰색은 모든 빛깔 가운데 가장 밝은 색이죠. 그래서 신성한 색으로 여겼습니다. 흑색은 북쪽, 겨울에 해당됩니다. 은밀하고, 깊고, 인체의 신장, 오관의 귀, 맛의 짭맛에 해당됩니다. 이런 전통색의 영향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살아 있죠. 한국어의 색 이름을 보아도 색 이름 앞에 ‘색노랗다’처럼 ‘순’, ‘새’, ‘씻’, ‘시’ 등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오방정색뿐입니다.

한국의 물질문화는 오히려 복잡하고 정교한데요. 조선시대 혼례품만 해도 일일이 색깔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 진짓상에 무슨 색의 음식부터 들여야 하는지도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매우 놀랄 만하죠. 여러분이 한국에 방문한다면 고궁, 사찰 등을 가보고 싶고 또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이곳에 칠하는 색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문양 하나, 색 하나를 고궁이나 사찰에서 보면 한국의 문화재를 본다면 더욱 뜻 깊은 인류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서울의 상징색을 살펴볼까요?

동영상 : 서울의 팔레트, 단청과 한강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7026>

5차시 | 정리 및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예술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아리랑, 판소리, 사물놀이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미술, 서예, 공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연극, 뮤지컬, 영화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인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색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렵죠? 좀 철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의 예술문화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 점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속의 문화 탐색이라는 내용답게 오늘 나왔던 문화에서 나타난 어휘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과 무용에 나타난 국악, 양악, 선율, 장단, 악기, 기악, 성악, 판소리, 범무, 민속무용, 신무용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 한 번씩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악, 양악, 선율, 장단, 악기, 기악, 성악, 판소리, 범무, 민속무용, 신무용.

그 다음에 미술 어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한국의 연극과 영화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펴보면

가무백희, 탈, 산디놀음, 가면극.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가무백희, 탈, 산디놀음, 가면극.

다음에는 색채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 해 보십시오.

샛노랑다, 시벨검다, 푸르스름하다.

다시 한 번요.

샛노랑다, 시벨검다, 푸르스름하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죠. 특히,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큼 한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한류와 함께 한국의 대중문화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활동 자료 | Learning Activity Sources

■ 학습활동 1: 퀴즈

1. 다음 중 한국의 타악기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 가. 북
- 나. 장구
- 다. 거문고
- 라. 팽과리

2. 다음 중 한반도와 해외 한민족 사회에서 널리 애창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를 고르세요.

- 가. 탈춤
- 나. 아리랑
- 다. 사물놀이
- 라. 가야금 병창

3. 한국의 기본 다섯 가지 색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가. 붉은색
- 나. 검은색
- 다. 푸른색
- 라. 분홍색

4. 다음 중 '노란색(yellow)'에 속하는 말을 고르세요.

- 가. 시뻘겋다
- 나. 샛노랑다
- 다. 시커멓다
- 라. 푸르스름하다

<답안>

1. 다 2. 가 3. 라 4. 나

■ 학습활동 2: 시청각 자료

다음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사물놀이를 하는 영상입니다. 한국 사물놀이의 흥겨움에 빠져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국악 동영상 - 풍물놀이 Pungmulnori

제작: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https://www.youtube.com/watch?v=Elo67z1tE5M>



■ 학습활동 3: 확장 읽기 자료 및 생각해 볼 문제

1. 확장 읽기 자료

오주석(2003).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솔. 81-쪽.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앞 시간에 옛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옛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째, 작품 대각선의 1 내지 1.5배 거리를 두고 둘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끌어내리듯이 셋째, 마음을 열고 찬찬히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요즘처럼 소형 매체가 많지 않은 세상에 살았지요. 자극적인 동영상은 고사하고 그림 구경하는 일조차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지 화면인 그림 한 장을 보고도 실생활이 너무나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고 감탄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등, 아니면 그림을 감상하고 크게 감동한 나머지 꿈속에서 도깨비를 보았다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략)

과학자들도,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지만 그 눈은 오직 우리의 마음 길이 가는 곳에만 신경을 집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본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옛 그림을 진짜로 잘 보려면 옛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려진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폭 속에는 여러 형상이 갖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만, 요컨대 이 모든 것 또한 한 사람, 즉 화가의 마음이 자연과 인생에 대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묘사해 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화 감상이란 한 사람이 제 마음을 담아 그려 낸 그림을,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 사람의 마음이라니 원, 마음이란 것은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앞사람의 속도 열 길 물속보다 알기가 어렵다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그림은 마음을 그린 것이니, 그 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잘 보려면 거기 깔려 있는 도교 사상과 조상들의 토착신앙을 알아야 하고, 고신라古新羅 이래 천 년 불교 왕국 동안 만들어진 불교 문화재의 감상은 당시 사람들의 불교적 심성을 이해해야 가능하고, 또 조선시대 그림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사서삼경四書三經 정도는 대충 이해하는 교양이 있어야 그림의 진정한 뜻이 보입니다. 큰 절에 가서 불화를 보세요. 정교한 선과 눈부신 채색으로 그려 낸 갖가지 형상이 거대한 화폭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특징이라던데, 탕화는 왜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워 그렸을까요?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붓다의 깨달음, 그 진리로 우주가 화려하고 장엄한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유럽의 동굴 속에 그려져 있는 구석기시대 들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 몇 만 년 전에 그린 원시인의 그림이 그토록 놀랍게 사실적인 것은 그 들소를 꼭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2. 생각해 볼 문제

- 여러분 나라 옛 그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영어 스크립트 | English Script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and Korean Music and Dance

Hello, everyone! Today is our ninth class. Last time, we learned about 'Korean style and taste'. We will take the time to review once again. In the previous lecture, I mentioned that tradition and the present coexist as a characteristic of Korean culture. Also, although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old, it does not disappear with the passing of time, but it rather continues to appear in a new form or co-exists. As an example of that, I explained last time that hanbok is being changed into modernized hanbok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s for Korean style, we learned about hanbok, hanok, and traditional crafts. I said that hanbok is the attire of Koreans. Last time, as the characteristics of hanbok, we learned that there are soft curves and the ease of not being tight-fitting on the body. We also learned what components a hanbok consists of. In addition, we learned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and also learned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crafts, sagunja, the Goryeo Dynasty cheongja, and the Joseon Dynasty baekja. Furthermore, we learned about dancheong, which uses five colors such as green, red, yellow, white, and black to draw various patterns and drawings on wooden buildings to protect the structure and emphasize the beauty of the exterior at the same time. As the taste of Korea, we learned about the foods that represent Korea, kimchi and bulgogi, and regarding kimchi, we looked into the various types of kimchi by dividing them into ordinary kimchi and stored kimchi. Everyone, do you remember what types of kimchi there are? And regarding bulgogi, we briefly learned about how to make it. Did you all study a lot about the material added after the last class or what you learned about? Were there any difficulties while studying? And you all took a look at the additional learning materials that I presented, right?

Then, we will learn about Korean art culture today. We will take a look at the common characteristics within various art cultures, and then we will also learn about which of them Korean art culture is composed of. Let's first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today's class and the key words. In today's class, we will look into Korean music, dance, art, theatre, movies, and the color terms related to these cultures as well. It would also be nice to think about what characteristics there are in comparison with your own country's art culture. Then now, today's key words, the vocabulary. It would be nice for everyone to read it out loud together and to picture them out in your minds. First,

국악, 국악(gukak, Korean classical[traditional] music)

양악, 양악(western music)

장단, 장단(beat)



판소리, 판소리(Pansori)
가무백희, 가무백희(singing and dancing)
회화, 회화(painting)
서예, 서예(calligraphy)
샛노랗다, 샛노랗다(be deep-yellow)
시뵈겡다, 시뵈겡다(be bright red)

Everyone, I will read these vocabulary once again, so please follow me and memorize them in your minds.

국악
양악
장단
판소리
가무백희
회화
서예
샛노랗다
시뵈겡다

Then, we will first look at Korean music. First, we divide Korean music largely into gugak and yangak. Gugak refers to the traditional music that has been passed along for a long time and yangak refers to the music that expresses Korean people's sentiments based on Western music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1900s. Here, we learned about gugak and yangak.

To take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a little more, gugak can be divided into royal ceremony music, religious music, jeongak(classical music), folk music, and creative music.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is that it is composed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melody, rhythm, and structural form. First, unlike Chinese or Western music, the melody is composed in 3, 4, 5 and in terms of the jangdan(長短, beat, rhythm), there are many rhythms of the triple time kind. In addition, there are techniques of just throwing a jangdan out there and playing in free rhythm. A particularly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is the musical form called 'hanbae'. For example, in folk songs, a slow long and a fast song form a pair. This is called hanbae. It is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A particularl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gugak is improvisation. Improvisation is the product of the performances that were performed in the Korean society from long ago and the songs that were formed from those performances. For example, there is a part called 'deoneum'. Deoneum' refers to expanding and transforming the sori(vocals) by squeezing in one's own sori(vocals) to the original sori(vocals) basis. Deoneum. Also, Sanjo performers forming their own school by adding their own melody to their masters' and refining it into new music can also be said to be an example of that.



Next, we will take a look at instruments. Gugak was divided into jeongak(正樂, classical music, court music) enjoyed by the royal court or the yangban class and minsokak(民俗樂, folk music) enjoyed by the populace. Jeongak(正樂, classical music, court music), minsokak(民俗樂, folk music). For jeongak(正樂, classical music, court music), the Jongmyo Jeryeak(宗廟祭禮樂,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which was performed while holding ancestral rites in the royal palace is most representative. In minsokak(民俗樂, folk music) there are folk songs, pansori, and pungmul nongak(風物農樂), etc. Here, we want you to remember about jeongak(正樂, classical music, court music) and minsokak(民俗樂, folk music) as well as folk songs, pansori, and pungmul nongak(風物農樂). Depending on the way they are played, they can be divided into wind instruments, string instruments, or percussion instruments. String instruments include geomungo, gayageum, haegum, etc. and wind instruments include daegeum and tungso. What percussion instruments are there? Drums, jangu, jing, kwengari, etc. are the representative instruments. Here, there is the need for us to remember the names of the instruments. Geomungo, gayageum, haegum, and daegeum, tungso, and drums, jangu, jing, kwengari, etc. Hope you all can remember them.

Next, we will look further into the genre of gugak and its instruments. Among Korean gugak, as main instrumental music there are Jongmyo Jeryeak, Daechwita, Gayageum Sanjo, Geomungo Sanjo, and Daegum Jeongak. We will learn about Samulnori, which pioneered a new genre in modern gugak today. Originally, samul was a term that refers to the four instruments, bupgo, unpan, mokuh, and bumjong which are used in Buddhist rituals. Since these are in Sino-Korean words, it may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you to understand or memorize, but follow along with me.

Bupgo, unpan, mokuh, bumjong.

There were these four kinds of samuls that were used in Buddhist rituals. Nowadays, music and performances played with the folk percussion instruments of drums, jangu, jing, and kwengari is called 'samulnori'. You probably have already seen this samulnori many times. So, which four instruments are there that are used in this samulnori? The drum, jangu, jing and kwengari. I will read them one more time, so repeat after me.

Drum, jangu, jing, kwengari.

In 1978, in 'Love of Space', as four descendants of the Namsadangpae, Kim Yongbae, Kim Deoksu, Choi Jongsil, and Lee Kwangsu tried to combine tradition and modernity with each of their instruments, samulnori began and gained huge popularity. So now, there are many of these samulnori groups. Perhaps some of you have experienced it once before, or if not, it would be very exciting to try it once. Originally, they focused on studying the three pungmulgut kinds of uddari pungmul, udogut, and the 12th Samcheonpo nongak of the Yeongnam area. Next, we will look at the study on danggut of the Gyeonggido area which is interested in muak and then next, we will take a look



at pungmulnori which elaborately grafted the three things they studied about the Suljangu garak. The sounds are compared, the kwengari sound to thunder, the jing sound to the wind, the jangu sound to the rain, and the drum sound to the cloud and the sound of samulnori with the four combined into one is commonly described as a metaphor of a storm. Currently, samulnori is known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s Korean music and rhythm. Its popularity is rising each day, and if you watch and hear samulnori, you will see that it is very exciting and cheerful. It is expected that samulnori will become more and more globalized as Korea's unique music.

Yes, and next, we will learn about vocal music. Korean vocal music. Genres in gukak that can be seen as vocal music include folk songs, japga, gasa, sijo, pansori, danga and changeuk, and gayageum byungchang. Well, there is quite a variety,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Among these, folk songs, japga, gasa, sijo, and pansori are also a genre of literature while being referred to as a gagok(Korean art song) at the same time.

Folk songs in particular have been passed down orally for a long time and are loved by the people the most, and anybody can easily sing them. Among them, have you heard of the song, 'Arirang'? Arirang, as I remember, hallyu stars BTS have also sung this song, I believe. Arirang is a representative Korean folk song. Arirang' also refers to a group of songs that regularly or intermittently sing a chorus that contains vocabulary with similar pronunciation with it. Arirang is a representative Korean song that is widely loved and sung in Kore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ts lyrics are not fixed and has an open theme, so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anyone can sing freely. There is the Taebaeksanmaek Mountains which have been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early on. Arirang, which originated mainly from the Taebaeksanmaek Mountains gradually spread around the Jeongseon region of Gangwondo,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 representative folk song. It is unknown when Arirang, one of Koreans' favorite songs and a folk song, began. However, during mid-19th century, the popular folk song Arirang sung by Seoul's professional sorikkuns emerged, and as the popular folk song Arirang they sang spread and became widely popular across the country, several other Arirangs of the popular folk song style were created as well. Meanwhile, Arirang spread around in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 it had become a song in the hearts of many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those who had left the country and their hometowns to spread within Korea and outside of Korea as well. And in the modern times, in the U.S., Japan, China, Brazil, Keny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etc. The approximately 7.5 million Koreans who have emigrated all around the world, we mostly call them overseas Koreans. These people sing and know Arirang as well, so you can find that this Arirang is also functioning as a diaspora culture. Arirang, with the fact that it is being widely passed down and being recreated, transcending regions and generations, and in particular, recognized for its value of diversity that it can easily be made and sung by anyone just with the 'Arirang Arirang Arariyo' chorus, was registered as an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on December 5th, 2012. Yes, I have explained about Arirang quite extensively, so hopefully,

you will all remember it easily and for a long time.

Next, we will take a look at another representative pansori. Pansori is a kind of solo opera in which chang, that is, sori, and words, that is Aniri, and gestures, that is neoreumsae, are mixed and demonstrated together. In order to explain in easy terms, I used the example of an opera. It is essentially a solo song. Pansori' is a compound word of 'pan' and 'sori'. Sori' means 'music' and 'pan' means 'a place where many people gather' or 'situation or scene' so it means 'a song sung in a noripan(performance scene) where many audiences are gathered'. Pansori was originally performed as pannoleum along with various nori(performances), so it can be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Silla Dynasty when pannoleum existed. Pansori, started by a group of entertainers in this way,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was complet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orikkuns and the audience. Pansori realistically depict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o vividly reveal the reality of the lives of the ruled class, and it also represented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to express hope for a new society and era. Also, pansori is an art enjoyed by all classes, so with the fact that the ruling class and the ruled modulated each others' thoughts through art and through pansori, it is being evaluated as having been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societal modulation and integration. In addition, pansori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open, by embracing and synthesizing necessary aspects from various traditional arts, and is an ethnic method of expression that maximizes the expressive potential of the Korean language, So experts say that it has made a huge contribution to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 of Korean ethnic culture by sublimating it into an art that approaches universal problems of humanity. To put it simply, pansori is the essence of Korean culture that has shared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heenoaerak) that Koreans possess. It was recognized for its originality and excellence and was registered as the 2n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on November 7th, 2003 by UNESCO.

Yes, and next, we will switch the topic to look at dance. Everyone, do you like dance? We will now take a look at Korean dance. Korean dance refers to the entirety of dances that have been created and handed down in Korea since history to the present day. And besides that, it also includes contemporary creative dances based on Korean aesthetics. Now, we will take a look at beommu, folk dance, and new dance altogether. First, we will take a look at beommu. Beommu is also called 'seungmu',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ligious ritual of Buddhism and has constantly been passed down. Buddhist dances that currently exist include the Beopgo dance, the Bara dance, and the Butterfly dance,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dances in that it is not performed in harmony with a certain rhythm, but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 smooth Beompae melody. Next, we will take a look at folk dance. Folk dance refers to a dance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folk play in the lives of civilians and that which has been passed down among professional civilian entertainers. As a folk play, folk dance includes 'ganggangsuwolrae' of the Jella-do area, 'notdari baggi' of the Gyeongsang-do area, and also 'nongak dance', and as professional folk dance, there are 'salpuri', 'seungmu',



'hallyangmu', 'nojangmu', 'talchum', etc. There are many diverse types of dances.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so I will read them out loud once, so please read along and memorize them.

강강술래
넛다리밟기
농악무
살풀이
승무
한량무
노장무
탈춤

You might perhaps know talchum. Then let's look into talchum. For talchum, there is the 'Yangju Byeolsandae Nori' of the Gyeonggi area. There is also the 'Songpa Sandae Nori'. In the Hwanghae-do area, there is the 'Bongsan Talchum', and also the 'Gangyeong Talchum' and 'Eunyul Talchum'. In the Gyeongsangnam-do area, the 'Tongyeong Ogwangdae', 'Gasam Ogwangdae', 'Bukcheong saja nori' and 'Kukdoogaksi Noleum' are being passed down. It is a little difficult. Yes, we have looked into the types of talchum. Next, we will look at new dance. New dance refers to a genre of stage art that pursues new dance aesthetics based on today's Korean spirit and sensibility on the basis of the ideology of modern dance. Dances that are still being actively performed to this day are 'Hwagwanmu', 'Jangu dance', and 'fan dance'. I will read about the types of dances, so please read along.

화관무
장구춤
부채춤

The Second Session | Korean Art

The 'art' that we will take a look at in this period refers to all forms of art that possess visual beauty. That is, it refers to fields in art such as painting, architecture, sculpture, and crafts. At this point, we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these Korean vocabulary, painting, architecture, sculpture, and crafts.

In Korean art, abstract dispositions and naturalistic dispositions have coexisted, But coming to the present, naturalistic dispositions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basics rather than abstract dispositions. The abstract disposition appears in drawings of symbols and lines on stone or walls, as well as in drawings of symbols and lines on primitive earthenware and sculptures, and it is thought to remain in the Northern race culture. The naturalistic disposition is concise rather than having fancy technical shapes, and focuses on harmony with other things, and rather than artificial things, it values natural creativity that occurs in a natural state of impassivity. It can be said to be an expression of an optimistic worldview,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In the past, in the hunting era, there were the artistic dispositions of drawing animals on the wall or drawing in lines on earthenware, and also farming and expressing the great power of nature through art, experts say that the two dispositions coexiste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an agricultural society, the artistic disposition expressing the greatness of nature advanced.

Then, what are the representative arts of Korea? I will introduce several representative ones to you. First, Korean painting, and then calligraphy, sculpture, crafts. About this much can be named. First, I will explain about Korean painting. Korean painting is a generic term for paintings drawn by the hands of Koreans. In general, it refers to paintings that were painted by Korean traditional techniques and styles. To describe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t by vocabulary and spoken words, many experts would say 'simplicity, wit, and friendliness'. The vocabulary that appear here, 'simplicity, wit, friendliness'. We normally use these vocabulary to express things like, 'simple, witty, and friendly'. I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the vocabulary here, 'simplicity, wit, and friendliness'. Korean painting refers to paintings painted on types of hanji, sunji or hwaseonji, or on silk using ink stick or pigments soluble in water with soft brush strokes. Based on the view on painting and theory of painting based on an oriental view of nature and values, it has formed a style unique to Korea. The hanji used in Korean painting is a paper unique to Korea, made from mulberry trees. Its production process is very intricate and demanding. Hanji produced in this way is very soft, has great ventilation, and has superior heat retention. It also has sound-proof qualities, is very tough, and dyes well naturally. Up until the 1960s, hanji was very widely used. Also, it was exported to a lot countries overseas, including Japan. However, coming into the modern times, it is used most often as drawing paper for calligraphy or



oriental painting, and is mostly being used only for crafts production, greeting cards, invitations, genealogy, Buddhist scripture printing, and changhoji. Although the scope of usage has been reduced a little bit, the excellence of hanji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again and a mass produc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an extent so it can now be distributed as a global Korean product. Hanji is essentially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Koreans. Here, you can learn about hanji.

It is estimated that 'Korean painting' started developing in full-scale after the three Kingdoms period. If you suppose the art of the Goguryeo era, you can see Soo-ryub-do, genre paintings, and muyongdo, etc. that remain on murals. On those such paintings, you can see the bravery of the Goguryeo people, the Koreans who rode horses and shot arrows. For the art of Silla,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elegance of the art of the Silla people in the painting 'Cheonmado' painted in an ancient tomb called 'Chengmachong' in the city of Gyeongju. Here, you can understand the vocabulary like 'mural, soo-ryub-do, cheonmado.' During Goryeo, many Buddhist drawings were drawn. It is perhaps because the state religion was Buddhism. And in the Joseon dynasty, besides Buddhist drawings, various genre paintings of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were drawn. When speak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it can be said that a lot of what is told about is from the Joseon dynasty. Korean paintings are sometimes divided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boundary of the 17th century, but it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early phase refers to what was made mainly by painters of the hwawon from the early 15th century to mid-16th century, and it refers to the times of Song Dynasty and Yuan Dynasty in China. It is a period during which the painting style of the Song and Yuan dynasties of China were imitated as is, and the sansuhwa of the painter An Gyeon is representative. The middle phase refers to the mid-16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and it is said that the painters Yi Chong, who ha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ainting, and Yun Du-seo, etc. actively painted these paintings. The latter period refers to the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when new methods of painting and new ideologies of painting were born. This period is evaluated as an excellent period of Korean painting. From after the middle phase of Joseon, Korean paintings are of Korea's landscape - mountains and streams.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t deals with the lives of Koreans as its subject matter. As representative painters, there are Jeongseon, Kim Hong-do, Shin Yun-bok, etc. The painter Jeongseon is famous for the Jinkyung Landscape Paintings/Real Landscape paintings that depicted the actual setting of Mt. Geumgang. Kim Hong-do and Shin Yun-bok were masters of the genre of genre paintings whom wittily portrayed the lives and sorrows of the late Joseon people. Here, we can understand these painters, 'Jeongseon, Kim Hong-do, and Shin Yun-bok.'

Today, Korean painting has accomplished a unique development by blending Western paintings techniques on top of tradition. As those who are representative of this, there are Kim Kichang and Lee Sook Ja. One thing you need to know here is that since the Joseon Dynasty, many paintings of unknown painters rather than named painters remain. When we see these, we call these paintings 'folk paintings', and I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that of these folk paintings, there are those of very low artistic level to those that are comparable to the works of top class painters. Folk paintings. Here, we can understand folk paintings, which are paintings of Kim Kichang and also some unknown painters. The charm of folk paintings is that they are easy and simple. Also, they are straightforward and plain. While being so, it contains comical aspects that appear in life, as well as hope, belief, and realization, and it is characterized by having stylishness and excitement. If you take a look at folk paintings, the subject matter are flowers, birds, animals, that is either cows or puppies. Or dogs. Furthermore, fish, or the life of ordinary people of the times, or customs, shamanism and religion, lessons, public sentiment, etc. Very diverse and broad.

Okay, next we will take a look at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rt of writing with a brush or learning and mastering the method to do so. Calligraphy was mainly used as a ritual of refinement by the yangban class. Calligraphy started with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themselves have retained their original form of hieroglyphics instead of phonograms, and it is characteristic in that the characters that are presented through the brush, ink, or paper themselves include formative elements. Thus, we can see that in this Chinese character cultur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subject to artistic appreciation from early on. Unlike Yan Zhenqing or Ouyang Xun style, the calligraphy of the Goryeo era was changed to the Chinese Yuan dynasty's Zhao Ziyang style and somewhat lacked artistry. However, during later Joseon, Kim Jung-hee, the quintessentially good calligrapher emerged and pioneered an independent calligraphy style called the 'Chusa style'.

Here, we need to remember Kim Jung-hee's Chusa style. Also, it is very much worth noting that Gungche, a beautiful Hangeul handwriting, was developed mainly by court ladies. Just before, I praised Kim Jeong-hee. We will look into Kim Jeong-hee once more. Kim Jeong-hee's contribution was that he developed Korean calligraphy. His ja(type of pseudonym) was 'Wonchun'. And his ho(type of pseudonym) was 'Chusa'. Or, 'Wandang' or 'Yedang'. It is said that there were more than a hundred. It probably means that this person's name was known well, to that extent. At first, he imitated Yan Zhenqing's and Dong Qichang's handwritings and wrote in Ouyang Xun style for a while, but he gradually developed his own original penmanship. It is the creativity that Koreans have. It is said that Kim Jeong-hee's penmanship bases itself in Jeonhanye. He applied this penmanship to 'haeseo' and 'haengseo', breaking traditional penmanship and trying a new form of calligraphy, bringing a big innovation in the history of calligraphy. Kim Jeong-hee's handwriting fully demonstrated the modern sense of aesthetics. At that time, he received people's attention, and as time passes, the artistic evaluation gets higher.

Next, we will take a look at sculptures. The origins of Korean sculptures can be traced back to the Paleolithic Era, all the way to when bone tools were used. Of course, bone tools were created in a practical context, so they share a lot of things with craft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genuine sculpture in Korea began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ever since Buddhism was imported through Chin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Buddha sculptures have been the centerpiece. Buddha

sculptures, especially the Buddhist Monuments of Baekje preserved in the temple of Hôryû in Japan are monuments of a thinking Buddhist image, sitting cross-legged that reflect the excellence of Baekje sculptures. You probably have heard of it before.

Ban-ga Sayusang (The Buddhist Monuments of Baekje)

Repeat after me.

Ban-ga Sayusang (The Buddhist Monuments of Baekje)

It is now in Japan. And the 'Seosan Rock-carved Buddha Triad' is even called by the name 'the smile of Baekje', for the smile on Buddha's face, the particularly gentle smile, looks splendid. The smile of the Buddha and the Avaloketesvara are on it. The 'ban-ga sayusang' that appears in comm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ell-reflect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among those, the 'Gilt-bronze Maitreya in Meditation' created in Silla is said to show the essence of Buddhist sculpture. The Three Kingdoms Period - Goguryeo, Baekje, Silla. Especiall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unique Korean style of Buddha images and pagodas was established. The 'Mireuksaji stone pagoda' which was built around the 7th century can be said to be the original style of Korean stone pagodas.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Jeongnimsa Temple Site' of Buyeo of Baekje shows a transitional style. It is evaluated that through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Gameunsa Temple site' which King Munmu of Silla founded, the model Korean pagoda was defined. Yes, the names are a little bit difficult, but I want you to remember at least the 'ban-ga sayusang.'

Also, during the Goryeo dynasty, wooden printing developed a lot. So,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was engraved, and then from after that, metal types were invented. As a result of that, our typography probably also developed to a world-class level. During King Gojong's times, a book called 'Sangjung-gogyeum-yemun' was published. This can be said to have been 200 years earlier than the Western metal typewriter. And there is the world's oldest book printed with metal type that still remains today, that is, 'Jikji' published in 1377 at the Heungdeoksa temple. Here, the Buddhist scriptures called the Tripitaka Koreana printed with woodblock techniques and the book called Jikji printed by metal types. I would like you to remember these two. One is 'Tripitaka Koreana' and the other is 'Jikji'.

We will take a look at modern Korean sculptures. It started with Kim Bok-jin in 1925. He was a pioneer who combined the elegance of classic Greek sculptures with traditional Korean aesthetics in 'Baekhwa(White Flower)', 'A boy' etc. However, at present, his works do not remain. It is a shame. So, preservation is important. Only this picture remains. Then after, abstract sculptures were made by Kim Chung-Sook and Kim Chong Yung. While Kim Chung-Sook presents an abstract world inferred as a natural object through symmetrical and organic form, In the case of Kim Chong Yung, he created works and fabrications of very geometric, simple and clear form based on his

inclination for pure sculpture. Until the early 60s, Korean sculpture consisted mainly of figurative human body sculptures. Entering the 1970s, the 'theatricality' that can be seen in human body sculptures was rejected and the tendency towards exploring the form and structure created by the work as a whole object spread. Going through the reductive trend of the 70s and reaching the 80s, not only traditional materials such as soil, stone, wood, bronze, etc., but also sculptures that used steel, synthetic resins, ready-made articles, etc., were very actively presented. The aspect of content and form diversification indeed will develop.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rapid rise of installation art, it can be said that qualitative changes occurring in sculpture is the new phase in modern Korean sculpture. Although there are many representative Korean sculptors, I would like to introduce Park Eun Sun, who is active in Italy. Park Eun Sun is a sculptor who is currently doing very well in Italy. In 2015, he was awarded the Republic of Korea's Order of Civil Merit, Seongnyu Medal, and the reason he received an Order of Civil Merit instead of an Order of Cultural Merit was because he was said to have gone beyond the achievement of an artist to show the power of Korea, acting as a representative of Koreans. In addition, Park Eun Sun was awarded the Italian Fratelli Rosselli Sculpture Award in 2018.

Next, we will take a look at crafts. Ever since ancient times, there has been an outstanding craft culture in Korea. The metal craft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stone crafts as well, and the abundant crafts from Tong-il Silla prove the excellence of Koreans. The Goryeo celadons of the Goryeo Dynasty are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 They are world-class works. The beauty of Goryeo celadons even surprised the people of China, which is the home of celadons. In particular, the masterpieces of najeon chilgi(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are said to be in the collections of leading art galleries and museums around the world to this day. Here, I would like you to learn the expressions 'gongye(crafts)' and 'najeon chilgi(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In the past, the realm of crafts was very broad, but today, it has become quite narrow. And still, the scope is wide, covering a wide range from types of tools to fine crafts for appreciation. Ceramics' are indispensable everyday-life tools for human life ever since the past to present day today. Through pottery, one can assume the cultural age and level of a country.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art. Korea has been making and using earthenware every since the Neolithic Era, 6000~7000 years from now, and made pottery baked in high temperatures every since 3~4th centuries, during the earlier half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Especially after entering the Goryeo Dynasty, the pottery began developing into the Goryeo-style celadon which is evaluated as a symbol of Korean pottery and reaching the 12th century, the glaze, the glaze became brighter, and newly refined intaglio or embossed carving patterns continued to develop, and it matured on. Here, we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the vocabularies 'dojagi(pottery)' and 'cheongja(celadon)'. During the Goryeo Dynasty, cheongjas were the majority, then after entering the Joseon Dynasty, patterns were gradually added in white, and the glaze changed into light blue gray. We call this buncheongsagi(grayish-blue powdered celadon). Buncheongsagi(grayish-blue

powdered celadon). The characteristics of grayish-blue powdered celadon is that the patterns are drawn in white, and a beautiful flow of lines are expressed, Also, rather than drawing precisely, I mean that drawings are simplified by omitting and transforming. These white-patterned grayish-blue powdered celadons reached their peak, and then afterwards, baekja(white porcelain), painted entirely in white became the majority. Here, we should remember the vocabulary, 'buncheongsagi(grayish-blue powdered celadon)' and 'baekja(white porcelain)'. Buncheongsagi, baekja. # Shall we watch some interesting videos related to Korean painting?

video : An impudent Korean painting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4914>

The Third Session | Korean Theater and Film

In this period, we will take a look at Korean theatre and film. First, just like other countries, the origins of Korean theatre can be found in the harvest ceremonies of primitive ancient tribes. It dates all the way back to 3rd century BC. To give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nations of Korea. There were Yeonggo of Buyeo, Dongmaeng and Mucheon of Ye of Goguryeo, and the May festival of the country called Mahan, and also the October festival of Mahan. Among them, Yeonggo of the country called Buyeo was a hunting and agricultural rite serving as a prayer ritual and thanksgiving in December thanking for the bountiful harvest. It is said that during this period, the imprisonment was suspended and prisoners were released. This means it was that important. And similarly, Dongmaeng and Mucheon were similar kinds of harvest ceremonies of October, and they could be called a Thanksgiving in recent terms. Here, we should remember 'Yeonggo, Dongmaeng, Mucheon' these harvest ceremonies. I will read them once again.

Yeonggo, Dongmaeng, Mucheon.

These are the harvest ceremonies. Mahan's May ceremony was a sort of fertility festival held in May. The October festival was a sort of Thanksgiving ceremony held after farming in October, and the method was the same as the May ceremony. We will continue on to take a look at Korean theatre. Korean theatre can be divided into four parts - the play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plays of the Goryeo period, the plays of the Joseon period, and plays of the modern er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various singing and dancing and performances were held, and these were generically referred to as Gamubaekhee. That is, Goguryeo's Goguryeoak, Baekje's Kiak, Silla's Cheoyongmu and O-gi, etc. combined into Gamubaekhee. It can be represented as a state of performance that was yet undivided into music, dance, or theatre. To some extent, the original form of Gamubaekhee can be found in Gamyeon-mugeuk(masked dances). There is Cheoyongmu, which made its way through the Goryeo period and the Joseon period and was performed in the royal court Na-Re. Here, we should remember Cheoyongmu.

As plays of the Goryeo period, there were Palgwanhoe, Yeondeunghoe--these national events, and there are Sandinori and Baekhee, where the two elements of ritual and entertainment are mixed. Sandi here is a representative Korean mask play during which a stage is built along a big road or an empty playground and performers perform. It is a folk play where the performers wear a tal and dance to the music while accompanying gestures like a pantomime, singing, delivering jokes, etc. Now, tal, that is, masks. Narye, an event of casting spells to cast away evil spirits also seems to have a



close correspondence with theatre, and we can even think of Johee, which has a hwageuk-style element. During this period, traditional names like Jaein, gwangdae, etc. which refer to people like actors and the kind appeared.

After entering the Joseon period, Sandinoleum and Narye prevailed. It is said that the court even once had a Sandaelogam to entertain foreign envoys. After mid-Joseon, this Sandaelogam was discontinued. The currently existent Sandinoleum kind of performance is a mask play of after when it was passed on to the common people. Here, the form of folk-style mask plays like Yangju Byeolsandae Nori, Bongsan Talchum, Ogwangdae, and Yaryu drama of the Kyungnam area remained.

To take a brief look at modern theatre, it developed into new theatre along with new culture, and it had to be introduced from Japan, and it began to be known to the public by the name Shinpa around 1910. Shinpa(a new-school play). After that, around 1923, a theatrical troupe called 'Towolhoe' was formed, and through this troupe,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lays, plays that promoted the modernization of theatre spirit were able to be performed. In particular,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heatre Arts Association in 1931, it was able to be full-fledged. Korean theatre, after it underwent a generational change after the 1960s with the participation of talented rookies, met the spring of theatre in earnest in many aspects such as theatrical troupe activity, theatre construction, production of playwrights, critique, and the fostering of actors, etc. In particular, from 1983, the National Theatre Festival was held each year, and through the awarding of the President's Award, the Excellence Award, and the Encouragement Award, they put effort into promoting theatre.

For your interests, the most popular play these days, the play called <Last Session>. I have not seen it yet either. This play is a play that made the debate the founder of psychoanalysis, 'Sigmund Freud' and the author of The Chronicles of Narnia, 'C.S. Lewis had in the form of a play. You would have heard of it a lot, you have heard of <Squid Game>, right? Do you remember the actor who played participant number 1, O Yeong-su? Actor O Yeong-su won the Golden Globe Best Supporting Actor Award as the first ever Korean actor. I am introducing to you <Last Session> in which this actor O Yeong-su participates as a lead role.

Next, we will take a look at musicals. When you think of 'musicals', you tend to think of England or the U.S. It is thought that musicals started in Korea in 1966, around 100 years after the first ever musical in the world was born. Before Western musicals were introduced, traditional musical drama performances such as changgeuk and gageuk, akgeuk, and pansori existed. It is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se such performances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musical culture to gain public attention at a relatively early period and successfully lead on and develop. What is the first ever original Korean musical? It is <Come carefully> (in Jeju dialect), an original musical which was made by the musical group called Yegreen in 1966. This musical provoked a considerable response, positive response at the time, Umm, a senior singer who has retired now. The theme song sung by the singer Patti Kim, <Come carefully>, it made a huge success as a pop song, and it marked the beginning of Korean musicals. After that, after passing

through the beginning period led by the National Singing and Dancing Group, the early days are thought to be from 1978 to around 1988. Hyundai theater's <Jesus Christ Superstar> or the City Theatre Company's <Fiddler on the Roof> Like so, as Broadway musicals got translated in earnest, they began to be introduced to Korean people.

During the growth phase of musicals, from 1988 to 1999, there was the 'Lotte World Art Theater' which led commercial musicals. Well, original musicals such as <Into The Mirror>, <Man of La Mancha>, <Singin' In The Rain>, <The Last Empress>, <Nanta> and a series of imported and translated musicals such as <Broadway 42nd Street>, <CATS>, and <Fame> became popular to the public. Did you know that Korean musicals are highly appraised internationally, like how in particular, the musical 'The Last Empress' received worldwide acclaim on Broadway of New York? What you must do first when you come to Korea is watch a musical. The Last Empress' is the story of a queen who was assassinated by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about Empress Myeongseong. It received several awards in 1996 including the Best Musical Award and the Best Director Award from the Korea Musical Awards, and it was performed in West End of London and Broadway of New York. Here, London's West End and New York's Broadway are where they make representative musicals. And as world-famous musicals such as <RENT> and also <The Phantom of The Opera> show advancement with the trend of scale-expansion and modernization, it is said to be the phase of expansion in musicals. I have shared with you that it has been developing ever since the 2000s.

Next, we will look into Korean film. In fact, there is way too much to tell about Korean film. Actually, I have to teach you, and I contemplated a lot about what to teach you, and we will first take a look at the most basic things. The movie that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first Korean movie is a kino drama called <Loyal Vomiting(Uirijeok Guto)> of October 27th, 1919, created by Singeukjwa which was led by Kim Do San, made in the form of a mix of stage performance and screening. At Korea's first ever full-fledged permanent movie theatre, that is Danseongsa. I think Danseongsa is perhaps gone now. <Loyal Vomiting(Uirijeok Guto)> which was revealed at Danseongsa was presented by projecting it on a screen that was inserted in the middle of the play. In the early 1920s, there were many Korean films that adapted classic works such as <Janghwa Hongryeonjeon> by director Kim Young Hwan, <Unyeongjeon> by director Yoon Baek Nam, <Shimcheongjeon> by director Lee Kyeong Son, etc. Reaching the late 1920s, Korean film began to grow its own power, and it was Korean National cinema that formed those roots. That is, National cinema. I believe you studied this in the previous class as well, you have heard of the song 'Arirang', right? A turning point in Korean film, <Arirang> was created by director Na Woon-gyu. As of <Arirang>, a series of works that expressed the self-respect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will of resistance to Japan continued. Entering the 1930s, realistic and Enlightenment tendencies began to emerge in film. In the 1930s, with production companies that were equipped with studios and recording facilities centrally taking the lead, film production flourished. In the 1940s, due to Japanese imperialistic control policies such as the 'Joseon Film Control Ordinance', film's foundation itself was shaken and put in danger. After mid-1950s,

director Lee Gyu Hwan's <Chunhwangjeon> and such succeeded as a box-office hit So, the government presented a plan to revive the film industry and created a boom in production. Following that, from around the middle, the number of productions increased astonishingly, and with the appearance of young directors who acquainted new senses, the trends of the works were very diversified as well.

What laid the turning point of Korean film was the late 1980s. It was also at this time when a series of directors who could be called new wave emerged along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of democratization. The so-called planned-films appeared. The appearance of planned-films in the early 1990s laid the turning point for a change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by adhering to the trends of the times and discovering subject matter that delves into the public's unconscious, a huge stem of Korean film was formed since after the 1990s. At this time, due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of film, as well as the emergence of the multiplex Changes in the theatre environment, the settlement of large-scale distribution systems, these systematic changes interlocked and Korean film is experiencing explosive growth. Then now, we will take a look at Korean movies. The movies that came out at this time are 1999's <Swiri>, 2000's <Joint Security Area JSA>, 2001's <Friends>, 2002's <My Wife is a Gangster>, 2003's <Memories of Murder>, another of 2003, <Silmdo>, 2004's <TaeGukGi: Brotherhood Of War>, etc.--many super hit films were produced. In addition to the revival of the industry, Korean film was awarded a Director's Award, at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rector Im Kwon-taek, with <Chihwaseon>. I believe it was 2002. In 2003, director Park Chan-wook won the Grand Prize of the Jury with <Oldboy>, and our directors' status was raised overseas as well.

And recently, the movie <Parasite> came out. It is director Bong Joon Ho's work from 2019. It is a film that deals with the story of two families living the opposite extremes, with the severance between classes and stratum due to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polarization. This film won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2019, accomplishing a huge breakthrough in the 100-year Korean film history and continued to achieve a great feat, being awarded in 4 categories, Best Picture, Best Director, Best Screenplay, and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at the 92nd Academy Awards held in February 2020. Also, the movie <Minari> is director Isaac Chung's work, dealing with the story of a Korean immigrant family that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He is a Korean-American, director Isaac Chung. It contains the story of a Korean family that immigrated to a farm in Arkansas, dreaming of the American dream in the mid-1980s. This movie was awarded the Jury Prize, the highest award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of the U.S. in February 2020, and it is an outstanding film that won consecutive awards at various critics associations in the U.S. I have heard that it has won over 60 awards. Also, in January of 2021, by the American Film Institute, which is recognized for its public trust, even being called the 'preview Academy Awards', it was nominated as one of the 'Movies of the Year, 2020'. And at the 78th Golden Globe Awards held in March 2021, it won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Award. The actress Yeo-Jong Yun who appeared in this <Minari>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Supporting Actress and is also receiving great attention. # Shall we watch a video related to Korean movies?

video : Meet Korean Movies in the Movie City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3841>



The Fourth Session | Cultural Significance of Korean Color Language

Now, in this period, we will take a look at color terms. Color terms are terms that express shades or color. The basic color terms in Korean pertain to pure Korean. They are 'black, white, red, blue, and yellow' these five. Here, we can discover on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color terms in the minds of Koreans. Well, if you compare China and England, 'chung' and 'nok', 'blue' and 'green', they a mass of color divided and indicated in two words In Korean, it is indicated by one word, 'pureuda'. There is the sentence, "The mountains and trees are 'pureugo'(green), and the river and sea are also 'pureuda'(blue)." Here, we can understand 'pureuda'. When we visit a Korean palace or temple, it is very pleasing to the eyes. If you ask why, it is because you can meet the diverse colors of Korea. From kiwa to the roof, dancheongs of fancy colors, to the colors of the pillars and windows doors, they all contain the colors of Korea.

Then what are the colors of Korea? They are the 10 colors, Ojeongsaek, Jeok, Chung, Hwang, Baek, Heuk, and Ogansaek, Hong, Byeok, Nok, Youhwang, Ja, which are based on the Yin-Yang and Five-Elements view of the universe. It is that in using color, Korean people assign ideological meaning rather than visual color. In fact, the oriental Yin-Yang and Five-Elements view of the universe is a basis not only for color but for the entirety of Korean culture. Yin-yang is the great principle that forms the universe, and the five elements are a way to express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re explained by the five principles of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This Yin-yang and five elements color system consists of obang(five directions), East, West, South, North and the center. It consists of 5 kinds of jeongsaek that pertain to the obang, and 5 kinds of gansaek which lie between each jeongsaek. In this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 five pure and basic colors are called jeongsaek, and the colors that occur as a combination of a jeongsaek and a jeongsaek is called gansaek. As jeongsaek, there are chungsaek of East, baeksaek of West, jeoksaek of South, heuksaek of North, and hwangsaek of the center, these 5 colors. As gansaek, there are byuksaek between chungsaek of the East and baeksaek of the West, hongsaek between jeoksaek of the South and baeksaek of the West, youhwangsaek between heuksaek of the North and hwangsaek of the center, and jasasek between heuksaek of the North and jeoksaek of the South By using a total of 10 colors, Koreans considered it an important deed to maintain the order of the universe. Korea has traditionally used pure and light colors. And it is said that in Korean temples and palaces, in the static image that assimilates to nature as shown in this dancheong, the atmosphere of pure and bright colors were made to be cheerful. That is, Korea's image, the image of Korea's colors is an image of assimilation and adaptation to nature.



Then now, we will take a look at examples of the pure and light colors of Korea. Here is this dancheong. Walls, ceilings, and pillars of buildings are colored in with drawings or various patterns. They are colored in by using the five jeongsaek as the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five elements. Blue is the tree, red is fire, yellow is earth, white is metal, and black means water. Meanings of the seasons are included here as well. Blue for spring, red for summer, white for fall, black for winter, and yellow stands for the in-between seasons. Therefore, it is said that in the beauty of the Dancheong, draw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there is the meaning that the energy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harmonized well together to express good energy.

This cheongsaek, in terms of direction, represents East, where the sun rises, pertains to spring when all things are created, and symbolizes clean life. And of the five elements, it is mok, the tree, the color that symbolizes the sky and lush plants. Cheongsaek, along with jeoksaek is considered the color that wards off bad spirits and wishes for good fortune.

Jeoksaek, in terms of direction, corresponds to the gentle south where all things are lush, corresponds to summer, and of the five elements, is hwa, symbolizing the sun, fire, and blood. Because jeoksaek is as color full of vitality, it is recognized as the most powerful color, and it pertains to the human body's heart, the tongue of the five senses, and bitterness of tastes. It is a color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color to ward off bad spirits along with cheongsaek, so it is most often used for shamanistic purposes in people's daily life, in clothing, food, and shelter. Hwangsae corresponds to the center and it is associated with all four seasons, so it is the noblest color among the five colors, and was the Hwangsae that the king used.

Hwangsae corresponds to the center of the universe, so it is thought to embrace everything and to harmonize everything. Baeksaek corresponds to fall, is related to the West, and it symbolizes purity and integrity. Baeksaek has been favored every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because it accords well with the spirit and temperament of Koreans, especially the people of Joseon. Baeksaek is said to be the color used most often and the most favored in Korea. White is the brightest color of all shades. Therefore, it was considered a sacred color. Heuksae corresponds to North and winter, it is secretive and deep, and it corresponds to the ears of the five senses and saltiness of tastes. These influences of traditional colors are alive in the lives of Korean people. If you look at the color names of Korean, you can add words that emphasize the purity of the color, such as '순' '새' '씻' '시' as in '섶노랗다(be deep-yellow)', and these can only be added to the obangjeongsaek colors.

Korea's materialistic culture is rather complicated and intricate. Even the wedding items of the Joseon Dynasty each had designated colors. There were rules about what color foods had to be served on the dinner table of the parents of the husband, so it is quite surprising. If you were to visit Korea, you would want to and you probably will visit palaces and temples. There, they show that even in each of the colors that are painted on them contain deep meaning, and that there is a point of view of the world. If you look at the Korean cultural assets in the palaces or temples by each pattern, each



color I think you will be able to see from a much more meaningful and human cultural point of view. Shall we take a look at the color of Seoul through the video?

video : The Palette of Seoul, Dancheong and Han River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7026>



The Fifth Session | Summary and Closing

Everyone, today, we have looked into Korean art culture. We learned about Korean traditional music, Arirang, pansori, and samulnori. And we also took a look at Korean traditional art, calligraphy, crafts, and also took a look at theatre, musicals, and film, which you are interested in. To end with, we learned about the colors that Koreans like which are melted in Korean culture. It was a little bit difficult, right? It could seem a little bit philosophical. I wish you could take the time to think about how it is different from your own countries' art culture, and whether there aren't any similarities. Then, as the content is 'Cultural exploration within the Korean language', we will study the vocabulary that appeared in the cultures we dealt with today. First, 'gugak, yangak, sunyul, jangdan, akgi, kiak, seongak, pansori, beommu, minsok muyong, shin muyong' When I read it once, I would like you to follow along and read it once. I will read it again.

Gugak, yangak, sunyul, jangdan, akgi, kiak, seongak, pansori, beommu, minsok muyong, shin muyong.

Next, we will take a look at art vocabulary.

Hangukhwa, hoihwa, seoye, jogak, gongye.

I will read them once more.

Hangukhwa, hoihwa, seoye, jogak, gongye.

Then, to look at the vocabulary the appeared in Korean theatre and film,

Gamubaekhee, tal, sandinoreum, gamyungeuk.

To read them again,

Gamubaekhee, tal, sandinoreum, gamyungeuk

Next, about color terms, they could be a little bit difficult. Just think of them as interesting and try to follow along as I read them.

샛노랑다(be deep-yellow), 시뵤경다(be bright red), 푸르스름하다(be bluish).





다시 한번요.

샛노랗다(be deep-yellow), 시뵤경다(be bright red), 푸르스름하다(be bluish)

Okay, next time, we will take a look at hallyu. Hallyu is things related to Korea, including Korean pop culture. In particular, it refers to the phenomenon of gaining popularity overseas. How much about hallyu culture do you know? We will also take the time to learn about Korean pop culture along with hallyu. I will end the class here today. Everyone, you have done well. We will meet again next class. Thank you.



중국어 스크립트 | Chinese Script

第1课时 | 导入以及韩国的音乐和舞蹈

同学们，大家好。今天已经是我们的第7节课了。在上节课中我们一起学习了韩国的味道和韩国美。我们一起来复习一下。在上节课中，我们提到过韩国文化的特点是传统与现代共存的。韩国的传统文化虽然是古老的，但是是不会随着时间的流逝而消失的，而是会不断地以新的面貌出现或与传统文化共存。比如我们上节课提到了顺应时代变化而出现的改良韩服。关于韩国美，我们学习了韩服、韩屋、传统工艺等。我们说过韩服是韩国人的传统服装。上节课我们学习了韩服的特点，即曲线柔和，不会紧贴身体较为宽松。还学习了韩服的构成。此外还学习了韩国的传统房屋-韩屋、韩国的传统工艺、四君子、高丽时代的青瓷、朝鲜时代的白瓷等。还学习了用青色、红色、黄色、白色、黑色等5种颜色在木制建筑上画出各种花纹和图案，能保护建筑、还能凸显外观美丽的丹青。关于韩国味道，我们学习了韩国最具代表性的食物-辛奇和韩式烤牛肉，还对辛奇的种类进行了介绍，我们将辛奇分为普通辛奇和越冬辛奇。同学们还记得辛奇都有哪些种类吗？我们还简单地了解了韩式烤牛肉的做法。同学们看过上节课的课外补充材料了吗？也复习过上节课学习的内容了吧？在学习的过程中有什么不懂的吗？同学们也看过老师给的学习资料了吧？

那我们今天来学习一下韩国的艺术文化。我们将一起学习各种艺术文化中的共同特点和韩国艺术文化的构成。首先来看一下这节课的内容和核心词汇。这节课我们将学习韩国的音乐、舞蹈、美术、戏剧、电影以及与这些文化相关的一些色彩的表达方式。在学习的过程中，同学们可以将这些内容与自己国家的艺术文化进行对比，想一想都有哪些特点。那么我们来看一看这节课的核心词汇。我们一起来读一读，在读的过程中希望同学们可以熟悉一下这些单词。首先是，

国乐，国乐。
西洋音乐，西洋音乐。
节奏，节奏。
盘索里，盘索里。
歌舞百戏，歌舞百戏。
绘画，绘画。
书法，书法。
深黄，深黄。
鲜红，鲜红。

同学们，请再跟老师一起读一遍，跟读的过程中希望同学们可以记住这些单词。

国乐
西洋音乐
节奏
盘索里
歌舞百戏



绘画
书法
深黄
鲜红

那我们先来看看韩国的音乐。韩国的音乐大体分为国乐和西洋音乐。国乐是指长久以来一直流传下来的传统音乐，西洋音乐是指以1900年代之后传入韩国的西方音乐为基础，表达韩国人情感的一种音乐。首先我们先来了解一下国乐和西洋音乐。

说到韩国音乐的特点，国乐可以分为宫廷意识音乐、宗教音乐、正乐、民俗音乐、原创音乐等。韩国音乐的特点在于其旋律、节奏和结构形式等。从旋律上来看，韩国音乐与中国或西方音乐不同，是由3、4、5小节构成的。在节奏方面，国乐多数情况是3拍体系。另外还有随着节拍，按照自由节奏演奏的技法。韩国音乐的独特之处就在于“韩国国乐节拍”这种音乐形式。例如，在民谣中慢歌和快歌是由同一种节拍构成的。这就是韩国国乐节拍。也是韩国音乐的特点之一。尤其是国乐最重要的特征之一——即兴演奏。即兴演奏是从很久之前在韩国社会中进行的一种演奏，也指由这种演奏所创作出来的歌曲。例如有一个选段是“deoneum”。“deoneum”是指在盘索里原有的声音基础之上，再加上自己的声音，扩大音量而成的一种形式。Deoneum另外散调演奏者们会在老师创作的曲调当中加入自己的东西，改编为新的音乐，形成自己的流派，这也是deoneum的一种。

接下来我们来看乐器的相关内容。国乐分为宫廷或贵族享受的正乐和百姓喜欢的民俗乐两种。正乐，民俗乐正乐中最具代表性的就是在王宫祭祀时演奏的宗庙祭礼乐。民俗乐中有民谣、盘索里、风物农乐等。在这里，希望同学们可以记住正乐或民俗乐、宗庙祭礼乐，还有民谣、盘索里、风物农乐等内容。按照演奏方法进行分类，可分为管乐器、弦乐器和打击乐器。弦乐器有玄鹤琴、伽倻琴、奚琴等，管乐器有大琴、洞箫等。打击乐器都有什么呢？打击乐器中具有代表性的有鼓、腰鼓、锣、小锣等。在这里我们需要记住这些乐器的名称。玄鹤琴、伽倻琴、奚琴、大琴、洞箫、鼓、腰鼓、锣、小锣等。希望同学们能记住这些名称。

接下来我们再来看一下国乐的类型和乐器。韩国国乐中主要的器乐有宗庙祭礼乐、大吹打、伽倻琴散调、玄琴散调、大琴散调等。今天我们来了解一下现代国乐中开创的新体系——四物游戏（四物打击乐）。原本四物是指在佛教仪式时使用的法鼓、云版、木鱼、佛钟四个乐器。因为这些名称都是汉字词，所以同学们理解或者背诵起来有些困难，但还是请大家跟老师一起读一遍。

法鼓、云版、木鱼、佛钟。

这四种都是在佛教仪式当中使用的乐器。现在用鼓、腰鼓、锣、小锣等民俗打击乐器来演奏，这种音乐和演奏形式就被称为四物游戏。同学们可能看过很多次这种演奏。在四物游戏中使用的乐器有四种，都是哪四种呢？有鼓、腰鼓、锣、小锣。请再跟老师读一遍。

鼓、腰鼓、锣、小锣。

在1978年《太空之恋》中金龙培、金德洙、崔钟实、李光寿等4位流浪男歌舞戏班接班人用自己的乐器尝试将传统音乐和现代音乐结合在一起，由此创造了四物游戏，受到了很多人的喜爱。所以最近也有很多四物游戏社团。可能有些同学有过接触四物游戏的经验，或者接触之后觉得四物游戏很有趣。四物游戏是以京畿、忠清地区的woodari风物音乐和右道农乐，岭南地区的三千浦12次农乐等三种风俗农乐为基础的。接下来我们来看看对巫乐感兴趣的京畿道堂神，以及把三种长鼓独舞曲调巧妙结合在一起而形

成的风物游戏。手锣表示雷声，铙表示风声，长鼓表示雨声，鼓声表示云，这四种声音合在一起就是四物游戏的曲调，我们经常用这种曲调来比喻风暴。现在四物游戏不仅在韩国国内备受欢迎，作为韩国代表音乐和节奏也在世界闻名。四物游戏的人气日益高涨，大家也感受到了吧，听到四物打击乐的时候会不由自主地产生兴致。这种四物打击乐作为独特的韩国音乐，有望逐步迈向世界。

接着我们来看看声乐。韩国的声乐。国乐中可以被看做是声乐体裁的有民谣、通俗歌曲、歌辞、时调、盘索里、短歌、唱剧、伽倻琴并唱等。种类繁多，有点难吧。其中，民谣、通俗歌曲、歌辞、时调、盘索里既是文学体裁的一种，也是韩国歌曲的一种。

尤其是民谣，经过长期的口口相传，极受民众喜爱，是任何人都可以唱的一种歌曲。同学们听过“阿里郎”吗？据我所知，韩流明星组合BTS也曾经演唱过阿里郎这首歌。阿里郎是韩国最具代表性的民谣。阿里郎是指有规律地、间歇地、慢悠悠唱出副歌的一种歌曲，这些副歌中歌词的发音都比较相似。不仅是在包括韩国在内的朝鲜半岛，在海外韩民族群中阿里郎也是备受喜爱的一首具有代表性的韩国歌曲。这首歌的特点在于歌词并不固定，主题也很随意，任何人都可以自由地歌唱。早期在朝鲜半岛中央有一座太白山脉。以太白山脉为中心创作的阿里郎，发源于位于朝鲜半岛中东地区的江原道旌善地区，然后逐渐成为了具有代表性的韩国民谣。作为韩国人最喜欢的歌曲之一，我们无法得知民谣阿里郎是在什么时间创作的。但是在19世纪中期，在首尔出现了职业说唱歌手们唱的大众民谣阿里郎，随着他们演唱的这种阿里郎在韩国全国范围内流行，出现了很多其他形式的大众民谣阿里郎。另外，阿里郎在20世纪初日本帝国主义侵略期间广为流传，不仅仅是在韩国国内，作为离开国家和故乡的许多人心中的歌曲，这首歌在韩国国内、国外都很流行。即使在现代，美国、日本、中国、巴西、肯尼亚、加拿大、澳洲、新西兰等约有750万名韩国人移民到世界各国，我们称之为海外同胞。这些海外同胞也同样知道阿里郎、会唱阿里郎，我们可以发现阿里郎也起着一种流散文化的作用。从阿里郎能够超越空间和时间，广泛地流传和再创造这一点来看，阿里郎的多种价值都得到了认可，特别是“阿里郎，阿里郎，阿拉里呦”这一副歌部分更是所有人都会演唱，因此阿里郎也在2012年12月5日被联合国教科文组织认定为是人类非物质文化遗产。到这里为止我们介绍了很多有关阿里郎的内容，相信同学们对于阿里郎已经充分理解并印象深刻了。

接下来我们再了解另一个具有代表性的音乐——盘索里。盘索里是由一名说唱歌手和一名敲鼓的鼓手构成，配合节奏说唱，也就是说将声音与语言，对白、动作、旁白相结合，通过口述的方式演奏的一种独唱歌剧。简单来说，我们可以通过歌剧来举例说明。盘索里就是一个人唱的歌曲。盘索里是由“판”和“소리”两部分组成。“소리”是指“音乐”，“판”是指“许多人聚集的地方”或指“情况和场面”，合在一起是指“在很多观众聚集在一起的小戏台上唱的歌”。盘索里原本是和很多戏法在一起演奏的，它的来源可以追溯到新罗时期。这种由民间艺人开创的盘索里的特点在于，它是由说唱艺人和听众互相积极配合而完成的一种独特的演唱形式。这种盘索里真实地描绘了平民的生活，生动地展现了被统治阶层的现实生活，它代表着百姓的声音，表达对新社会和新时代的渴望。盘索里作为所有阶层都喜欢的一种艺术形式，它调节了统治阶层和被统治阶层之间的不同想法，从这一点来看，盘索里被认为拥有调节和整合社会的功能。盘索里吸取了各种传统艺术的特点，并具有将这些特点综合在一起的开放性特点，盘索里作为一种民族性的表达方式，最大限度地发挥了用韩国语表达的可能性，专家认为它是可以接近人类普遍问题的一种艺术，为韩国民族文化的传统继承和发展做出了巨大的贡献。简单来说，盘索里是与韩国历史和韩国人喜怒哀乐一起存在的韩国文化的精髓。盘索里的独创性和优秀性得到了全世界的认可，在2003年11月7日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第2批《人类口头和非物质遗产代表作》。

接着我们来看看有关舞蹈的内容。同学们都喜欢舞蹈吗？现在我们来一起学习一下与舞蹈有关的内容。韩国舞蹈是指从历史到今天在韩国生成并传承下来的所有舞蹈，此外还包括以韩国美学为基础的现代创作舞蹈。下面我们来一起看一下韩国舞蹈中的梵舞、民俗舞蹈、新舞蹈等。首先来看一下梵舞。梵舞也称“僧舞”，与佛教的宗教仪式密切相关，一直传承至今。现存的佛教舞蹈有法鼓舞、钹舞、蝴蝶舞

等，这些舞蹈不是按照一定节拍跳的舞蹈，而是根据流畅的梵呗曲调跳出来的，从这一点来看，这种舞蹈与其他舞蹈是有区别的。接着我们来看民俗舞蹈。民俗舞蹈是指在民间生活中具有民俗游戏性质的、在民间专业艺人之间流传下来的一种舞蹈。作为一种民俗游戏，民俗舞蹈有全罗道地区的“强羌水越来”，庆尚道地区的“过人桥”和“农乐舞”，另外专业的民俗舞蹈有“驱邪舞”、“僧舞”、“闲良舞”、“老长舞”、“假面舞”等。舞蹈的种类有很多。因为这些名称都很难，请同学们跟老师一起读，然后记住这些单词。

强羌水越来

过人桥

农乐舞

驱邪舞

僧舞

闲良舞

老长舞

假面舞

同学们可能对假面舞不是很了解。我们来看看与假面舞有关的内容。假面舞有京畿地区的扬州别山台民俗表演和松坡山台民俗表演。还有黄海道地区的“凤山假面舞”和“康翎假面舞”、“殷栗假面舞”等。在庆尚南道还流传着“统营五艺”、“驾山五艺”、“北青狮子游戏”和“木偶戏”等。内容有一些难，我们知道了假面舞的种类。接下来我们来看看与新式舞蹈有关的内容。新式舞蹈是按照现代舞蹈的特点，以现如今的韩国时代精神为基础，追求新式舞蹈的一种舞台艺术体裁。到目前为止，还在广泛流传的舞蹈有“花冠舞”、“长鼓舞”、“扇子舞”等。老师来读一遍舞蹈种类名称，请同学们跟读。

花冠舞

长鼓舞

扇子舞

第2课时 | 韩国的美术

这节课我们来学习“美术”，美术是指具有视觉美的所有类型的艺术。也就是说，美术包含绘画、建筑、雕刻、工艺等所有领域。在这节课上希望同学们可以了解到韩国语中的绘画、建筑、雕刻、工艺等内容。

韩国美术中的抽象主义和自然主义倾向虽是共存的，但如今自然主义倾向已经被确立为现代美术的基础，而非抽象主义。这种抽象主义体现在符号、线条、石头或墙壁上的图画里，出现在原始时代的陶器或雕刻等地方的符号和线条上，这些在北方文化体系中保留得较多。自然主义倾向与各种华丽的技术、形式相比，更加注重简洁性和与其他东西的协调性，与人工技术相比，它更重视在无念、无相、自然状态下形成的自然创造性。可以说这是融于自然的、和谐生活的一种乐观世界观的表现。在过去的狩猎时代，无论是在墙上画动物的图案或者在陶器上画线条还是务农，都有表达自然伟大力量的美术倾向，专家表示，这两种倾向先是共存的，然后随着农耕社会的发展，表现自然伟大力量的美术倾向才逐渐得以发展。

那么韩国最具有代表性的美术都有哪些呢？老师来为大家介绍几个具有代表性的美术类型。我们今天来介绍韩国画、书法、雕刻、工艺等内容。首先来看韩国画。韩国画是指韩国人手绘绘画的总称。一般来说它是按照韩国传统的技法和样式所画出来的。如果我们要用韩国语单词或语言来表达韩国美术的特点的话，多数专家会用“朴素、诙谐、亲切”等来表达。在这里出现的“朴素、诙谐、亲切”这些词汇，一般我们会用“朴素、诙谐、有亲切感”这些方式来代替。希望同学们可以理解“朴素、诙谐、亲切”这些词汇的含义。韩国画要用韩纸中的纯纸或画宣纸，在绸缎上用墨水或水溶颜料以柔软的毛笔进行作画。韩国画的绘画观和画论以东方自然观和价值观为基础，形成了韩国特有的绘画形式。韩国画使用的韩纸是用谷树制作出来的韩国固有的纸张。工序特别的复杂，而且非常娇气。但是这样生产出来的韩纸非常柔软，而且通透性很好，保温性也不错。而且隔音效果也很好，非常耐用，也很容易自然染色。在1960年代，韩纸的使用范围很广泛。而且大量出口日本等国家。但是到了现代，人们更多用书法或东洋画使用的宣纸，这种宣纸主要用于工艺品的制作或用于贺卡、邀请函、族谱、印刷佛经、糊窗纸等。尽管韩纸的使用范围已经缩小，但最近人们重新认识到了韩纸的优势，也在某种程度上形成了大型生产体系。韩纸也作为韩国商品在全世界广泛应用。可以说，韩纸是韩国人珍贵的文化遗产。同学们我们学习了韩纸。

据推测，韩国画正式发展的时期是在三国时期之后。让我们来推测一下高句丽时期的美术作品，有墙壁上流传下来的狩猎图、风俗图和舞蹈图等。从这些图画中我们可以看到骑马射箭的高句丽人英俊勇猛的样子。从现在庆州市天马冢坟墓上画着的‘天马图’中我们可以观察到韩国新罗人们的美术风格。在这里我们可以学习到“壁画、狩猎图、天马图”等这样的词汇。高丽时期人们更多地是画一些佛教图画。可能是因为当时韩国的国教是佛教。在朝鲜时期，除了佛教图画之外，人们还会画各种体现百姓生活的风俗画。说到韩国的传统美术，就不得不提到朝鲜时代的画作，很多当时的画作都流传至今。韩国绘画以17世纪为分割点，分为前后两期，但是我们一般会吧韩国绘画史分为三个时期。前期是从15世纪初期到16世纪中期，这时以画院的画家为中心，也就是指中国的宋朝时期和元朝时期。这时韩国的绘画是模仿中国宋朝或元朝的画风，当时最具有代表性的就是名为安坚 画家画的山水画。中期是指16世纪中期到17世纪，此时出现了凸显韩国画特点的画家李霆和尹斗绪等，他们的画作都反映了这个时期韩国画的特点。后期是指18世纪到19世纪，这个时期是诞生新绘画技法和新绘画精神的时期。这个时期被认为是韩国绘画史上最优秀的一个时期。朝鲜中期以后的韩国画一般都画一些韩国的山川，也就是韩国的山和

江。还会以韩国人的生活为素材进行作画。这个时期具有代表性的画家有郑善、金弘道、申润福等。画家郑善以描写金刚山的实际背景，即真景山水画而著名。金弘道和申润福是以诙谐手法描绘朝鲜后期人们生活 and 悲欢的风俗画大师。到此，我们了解了画家郑善、金弘道、申润福。

到了今天，韩国画以传统为基础，借鉴西洋画的画法，形成了极具创造性的发展。最具有代表性的画家有金基昶老师和李淑子老师。但是我们要知道，从朝鲜时期开始就有很多无名画家的画作流传至今。我们可以称这种画作为“民画”。这种民画的美术水平尽管很低，但也有一些仅次于一流画家的画作。民画这里，我们了解到了金基昶老师和一些无名画家的画作，即民画。民画的魅力在于简单、单纯。这种民画的画风坦率、淡雅。同时民画的特点还在于它包含了人生中滑稽的一面、希望、信任和觉悟，有韵味的同时也很有趣味。我们看民画可以发现，它的素材一般是花、鸟、动物，比如牛或者小狗等。另外还有鱼，或者是那个时代普通百姓的生活状况、风俗、巫俗和信仰、教训、民众的精神等，素材极为丰富。

接下来我们来看看书法。书法是指用毛笔写字或学习并掌握毛笔写字方法的一种艺术。书法主要是贵族阶层们作为教养课程来学习的。书法以汉字为对象，汉字并不是表音文字，而是象形文字，我们通过毛笔、墨水、纸张表示出来的文字本身就有一些造型特点，这也是书法的特征。因此，在汉字文化圈中早就将汉字作为艺术观赏对象来看了。高丽时代的书法与颜真卿和欧阳询体不同，当时的书法变成了中国元朝末期的赵紫阳体，艺术性稍有下降。但是进入朝鲜后期，书法家金正喜的出现开拓了名为“秋史体”的独特的书法体系。

在这个部分我们要记住金正喜先生的秋史体。另外名为宫体是很优美的一种韩文字体，我们要注意，这种字体是以宫女为中心传承下来的，这一点是我们需要注意的。刚才老师高度地称赞过金正喜老师。我们来看看金正喜先生。金正喜先生的功绩促进了韩国书法的发展。金正喜字元春，号秋史。又号院堂，礼堂。金正喜先生的号非常多，说是有超过100个。也就是说金正喜先生是很有名的。起初金正喜先生是模仿颜真卿和董其昌的字体，之后一度使用了欧阳询字体，最后逐渐独创了属于自己的书法。这就是韩国人的创造性。据传，金正喜先生的书法起源来自于前汉隶。这种技法用于楷书和行书，它打破了传统的书法形式，并尝试一种新形态的书法形式，在书法历史中引起了巨大的改革。金正喜先生的字充分展示了近代的审美意识。在当时这种字体受到了人们的关注，后来随着时间的推移，这种书法所获得的艺术性评价也越来越高。

接下来我们来看看雕刻。韩国雕刻的起源可以追溯到旧石器时代，即可以追溯至骨角器时代。骨角器是从实用性的角度出发制作的，因此它有很多部分都与工艺相重合。但是韩国真正的雕刻是从三国时代开始的，在三国时代，从佛教通过中国传入韩国以来，佛像雕刻一直是人们关注的重点。佛像雕刻，特别是保存于日本法隆寺中的百济观音像，是极具百济雕刻技艺优秀性的半迦思维像。同学们之前可能已经听说了。

半迦思维像

跟老师读一遍。

半迦思维像

这个雕刻现在保存于日本。此外还有瑞山磨崖三尊佛像，它们被称为是“百济的微笑”，这尊佛像脸上的笑容是特别温和优美的。这尊佛像和观音菩萨像的微笑一样。三国时期出现的这种半迦思维像很好地体现了各个国家的审美特征，其中新罗时期制作的“金铜弥勒菩萨半迦思维像”更体现了佛教雕刻技艺的精髓。三国时期的三个国家是高句丽、百济、新罗。三国时期的佛像和佛塔确立了独特的韩国式风格。



在7世纪左右建造的弥勒寺址石塔可以说是韩国石造塔的原型。百济扶余的定林寺址五层石塔体现了韩国雕刻过渡时期特有的样式，新罗文武王创建的感恩寺址三层石塔被评价为“确立了韩国石塔的典型雕刻”。这些名称相对来说比较难，但是希望同学们可以记住“半迦思维像”这个单词。

另外，高丽时期的木板印刷术十分发达。因此雕刻了大藏经板，之后又发明了金属活字。最终，活字印刷术也在全世界范围内发展成为一项优秀的技术。在高宗时期发行了用金属活字雕刻的书籍《详定古今礼文》。这比西方的金属活字本早200年。另外1377年在兴德寺发行的《直指心经》是目前为止流传下来的、用金属活字印刷的全世界最古老的书籍。在这里我们提到的《大藏经板》是用木板刻制的佛经，《直指心经》是用金属活字印刷的书籍。同学们记住这两个就可以了。一个是《大藏经板》，另一个是《直指心经》。

接下来我们来看看现代韩国雕刻。以1925年金复镇先生为代表，他在《百花》和《青年》等作品中将希腊古典雕刻的风格和韩国传统审美意识相结合。但是他的作品却没有流传下来。这一点很可惜。所以艺术作品应该被好好保存。现在他的作品只留下了这一张照片。此后主要是抽象雕刻，代表性人物有金正淑先生和金钟瑛先生。金正淑先生通过对称的有机形态，以自然对象的形式展现了类推的抽象世界，相反，金钟瑛先生则是凭着单纯的造型，创造了符合几何学的，单纯的作品和雕刻。直到60年代初期，韩国雕刻一直以具象的人体雕刻为主流。到1970年代，摒弃了人体雕刻上可见的“戏剧性”，作品多追求完整的物体，也有探索作品中已有的形态和结构的倾向。到了70年代，作品多有还原倾向，到了80年代，不管是泥土、石头、木材、青铜等材料，还是利用铁、合成树脂、现成品等制作的雕刻作品大量涌现。当然，内容和形式也会出现多元化的现象。特别是取代了雕刻概念的装置艺术迅速成长，使雕刻的质量发生变化，这也可以说是现代韩国雕刻的新阶段。现在韩国有很多具有代表性的雕刻家，但老师这节课想为同学们介绍一下在意大利活动的雕刻家朴垠宣。朴垠宣作家是目前正活跃在意大利的一名雕刻家。2015年获得大韩民国国民勋章石榴章，获得的并不是文化勋章，而是国民勋章，这是因为他超越艺术家的功绩，作为韩国人代表在国外活动，为全世界展示了韩国力量。另外，朴垠宣作家还在2018年获得了意大利Fratelli Rosselli雕塑奖。

接下来我们来看与工艺有关的内容。韩国从古代就开始就具有优秀的工艺文化。三国时期的金属工艺和石工艺、统一新罗时代的很多工艺品都展现了韩国人在工艺领域方面的优秀性。高丽时期的高丽青瓷是韩国代表性的作品。也是世界性的代表作。高丽青瓷的美丽让青瓷器的故乡——中国人也大吃一惊，据说，特别是螺钿漆器的杰作至今为止仍被全世界各大著名的美术馆和博物馆收藏。在这里希望同学们可以掌握“工艺、螺钿漆器”这两个单词。在之前，工艺领域的范围是很广的，但是如今却日渐变窄。即使范围变窄，范围也算是很大的，包括从器具种类到用于欣赏的高级工艺品。陶瓷是从过去到现在的人文生活中都不能缺少的一种生活器具。陶瓷可以衡量一个国家时代文化的水平。可以说是技术和艺术的结合。韩国从6000~7000年之前的新石器时代开始制作并使用陶器，从三国时代前期，即3~4世纪开始，韩国就在高温下烧制陶瓷。特别是在进入高丽时期之后，出现了被评为韩国陶瓷象征的高丽青瓷，到了12世纪，釉料颜色变得更加明亮，而且随着新出现的阴刻法以及浮雕图案地不断更新，釉面也变得更加成熟。在这里希望同学们可以理解“陶瓷、青瓷”等单词。高丽时期主要以青瓷为主，到了朝鲜时期之后慢慢用白色的颜料在瓷器上画图案，釉料也变成了淡青灰色。我们称之为粉青瓷器。粉青瓷器粉青瓷器的特点在于是用白色的颜料画出图案和一些优美的线条，另外它不是采用精美的画法，而是通过省略、变形、简要地画出相应图案。像这样加入了白色图案的粉青瓷器达到了瓷器制作的巅峰时期，此后人们不再在瓷器上加入图案，整体都用白色上漆的白瓷成为了主流。在这里希望同学们可以记住“粉青瓷器，白瓷”这些单词、粉青瓷器、白瓷# 我们来看一下有关韩国绘画的有趣视频吧？

视频：无理的韩国画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4914>



第3课时 | 韩国的戏剧和电影

这节课我们来看看韩国的戏剧和电影。首先韩国的戏剧与其他国家相同，在原始古代贵族的祭天仪式上可以找到其起源。戏剧的起源可以追溯到公元前3世纪。举一个最有代表性的例子，就是韩国的国歌。其中有扶余的迎鼓仪式、高句丽的东盟仪式、秽貊的舞天仪式、马韩的五月祭和十月祭等。其中扶余这个国家的迎鼓仪式意在12月感谢农耕收成或猎物丰厚，或起到农耕仪式中祈愿祭和感谢祭的作用。据说，在这期间之内会解除刑狱，释放囚犯。从这点可以看出其重要性。同时东盟仪式和舞天仪式也与之类似，作为在10月举办的祭天仪式的一种，相当于现在的秋收感谢祭。在这里我们需要记住“迎鼓、东盟、舞天”这些祭天仪式名称。老师再读一遍。

迎鼓、东盟、舞天

这些都是祭天仪式。马韩的5月祭是在5月份举办的一种祈愿丰收的祭礼。十月祭是在10月份结束农活之后举办的一种秋收感谢祭，祭祀方法与五月祭类似。接下来我们来看韩国戏剧。韩国的戏剧分为三国时代的戏剧、高丽时代的戏剧、朝鲜时代的戏剧和现代戏剧四个部分。在三国时期，开始流行各种歌舞和表演，一般我们统称为歌舞百戏。即高句丽的高句丽乐、百济的器乐、新罗的处容舞和五伎等都统称为歌舞百戏。当时作为代表的戏剧，并未细分音乐、舞蹈和戏剧。从某种程度上来说，这种歌舞百戏的原型是假面舞剧。经过高丽时代和朝鲜时代的演变之后，才开始在宫中雉礼中上演处容舞。在这里需要同学们记住处容舞。

高丽时代的戏剧有八关会和燃灯会等这种国家级的大型活动，当时，仪式和娱乐混为一体，有山台游戏和百戏等。山台是指在大路边或空地上堆砌祭坛做成舞台表演的一种韩国代表性的假面剧。带着面具，随着节奏起舞，是结合了无声剧的肢体动作和歌曲、相声等形式的民俗戏剧。面具，就是假面。一边念咒语，一边驱除恶鬼的雉礼也和戏剧有很大的关系，在这里我们要思考一下话剧的要素——讽刺即兴剧。这个时期出现了才人、民间艺人等传统意义上的演员。

进入朝鲜时代之后，山台游戏和雉礼很流行。据说朝廷为了接待外国使臣还设立了山台都监。朝鲜中期之后这种山台都监被废除了。现存的山台游戏系列的戏剧是指传入百姓之中后形成的假面剧。这种戏剧中保留了杨州别山台戏剧、凤山假面舞、庆南一带的五广大、野游等民俗假面剧的形式。

简单地说说现代戏剧。现代戏剧和新文化一起发展成了现代话剧，不管怎么说，这种戏剧都只能从日本引入，1910年前后，以新派戏剧的名称开始被大家熟知。新派之后在1923年前后“土月会”剧团成立，通过这个剧团，人们以“新派”的名义引进西方戏剧，同时开始演出追求现代化精神的戏剧。特别是随着1931年戏剧艺术协会的成立，现代戏剧正式登上舞台。1960年代后，在有才能的新人们的参与下，韩国戏剧完成了时代的交替。开始进行剧团活动、建立剧场、培养戏剧作家、戏剧点评、培养演员等活动，正式迎来了戏剧发展的飞跃期。特别是从1983年起，每年都会举办全国戏剧节，通过总统奖、优秀奖、鼓励奖的授予，致力于戏剧的振兴。

在这里我们来了解一下同学们比较感兴趣的内容，最近非常受欢迎的话剧——《Last Session》。老师也还没看这部话剧。该剧将精神分析创始人Freud Sigmund和纳尼亚传奇作家C.S.Lewis的争议制作成话剧的形式。同学们应该也都听说过，大家都看过《鱿鱼游戏》吧？还记得出演剧中1号参加者的演员吴永洙吗？演员吴永洙也是韩国首位获得金球奖最佳男配角奖的演员。我们今天向大家介绍的这部话剧就是由演员吴永洙主演的。



接下来我们来看看音乐剧。提到音乐剧，大家首先想到的就是英国或者美国。韩国的音乐剧是从1966年开始的，当时距离世界上第一部音乐剧的诞生已经过去了100多年。在西方音乐剧传入之前，韩国只有唱剧、歌剧、乐剧、盘索里等传统音乐剧形式。这种演出形式的存在使韩国音乐剧文化比较迅速地受到了大众的关注，成功为音乐剧的发展提供了契机。韩国最早的原创音乐剧是什么呢？最早的创作音乐剧是1966年由名为Yegreen的乐团创作的<悄悄来吧>。这部作品在当时引起了极大的反响和呼应，但现在这部作品的演员都是已经隐退的元老级歌手。帕蒂·金演唱的主题曲<悄悄来吧>也作为大众歌谣获得了巨大的成功，这也宣告了韩国音乐剧的开始。之后韩国音乐剧经过了由国家歌舞团主导的萌芽期，接着从1978年到1988年为止，进入了初创期。现代剧场的<Jesus Christ Superstar>和市立剧团的<Fiddler on the Roof>等音乐剧通过百老汇音乐剧改编，正式开始面向韩国公众演出。

音乐剧的成长期——1988年到1999年出现了引领商业音乐剧的“乐天世界艺术剧场”。<照出冤灵>、<Man of La Mancha>、<Singin' In The Rain>、<明成皇后>、<NANTA>等原创音乐剧和<42ND STREET>、<CATS>、<Fame>等一系列引进改编的音乐剧受到了大众的欢迎。特别是<明成皇后>这部作品在纽约百老汇也获得了世界性好评，使韩国的音乐剧在国际上获得了很高的评价，同学们知道这部音乐剧吗？同学们来到韩国最先要做的事情就是看音乐剧。<明成皇后>这部音乐剧讲述的是朝鲜时代被日本暗杀的王妃的故事。是与明成皇后有关的音乐剧。1996年这部剧获得了韩国音乐剧最优秀作品奖、导演奖等各种奖项，并在西伦敦和伦敦百老汇演出。这里提到的西伦敦和伦敦百老汇都是创作有代表性音乐剧的地方。另外，通过世界著名音乐剧<RENT>和<The Phantom of The Opera>等能看到音乐剧大型化、现代化的发展趋势，也是音乐剧发展的扩张期。我们了解了从2000年开始至今韩国音乐剧的发展。

接下来我们来看看韩国电影。事实上，韩国电影我们需要讲的内容很多。老师也考虑了很久应该给大家讲什么内容，首先我们先来一起了解一下最基本的知识吧。通常，公认的第一部韩国电影是连续写真剧<义理的仇讨>。这部剧是1919年10月27日，由金道山导演执导的新派剧，以舞台演出和银幕播放的混合形式制作的。当时它在韩国第一个正式的常设电影院，即团成社上映。现在团成社可能已经不存在了。在团成社上映的<义理的仇讨>是在话剧之间插入银幕播放的一部作品。1920年代初期，韩国电影多是以古典文学作品为主题进行改编的，如金永焕导演的<蔷薇红莲传>、尹白南导演的<云英传>、李庆孙导演的<沈清传>等。进入1920年代后半期，韩国电影开始有了自生能力，形成其根基的就是韩国民族的电影。即民族电影。据我所知，上节课同学们应该已经学习过了，大家听过“阿里郎”这首歌吧？多亏罗云奎导演，<阿里郎>这部电影使韩国电影出现了转折点。以<阿里郎>为起点，展现韩民族的自尊心、抗日决心的一系列作品不断涌现。进入1930年代之后，韩国电影开始凸显现实主义和后蒙主义倾向。1930年代，以同时拥有摄影棚和录音设施的制作公司为中心，韩国电影的制作逐渐活跃起来。到1940年代之后，根据“朝鲜电影统制令”等日本帝国主义控制政策，电影的基础岌岌可危。1950年代中期之后，李圭焕导演的电影<春香传>获得了极大的成功，政府也出台了电影产业复兴政策，并掀起了电影制作的热潮。因此从50年代中期开始电影制作篇数迅速增长，同时具有新感觉的年轻导演不断出现，电影作品的风格也日渐丰富。

为韩国电影提供变化的转机是在1980年代后期。在社会、政治方面，韩国电影随着民主化的氛围，出现了一批可以称之为是韩国电影界新浪潮的导演们。所谓的企划电影也开始出现在民众的视野中。1990年代初期，企划电影的出现也为韩国电影的转型提供了转机，韩国电影紧贴当代潮流，发掘可穿透大众潜意识的素材，在1990年代之后，形成了韩国电影主线。这时电影在的质和量两方面都迎来了迅猛发展，随着综合性多厅影院的出现，影院的环境发生了变化，建立了大规模发行体系，这些体系方面的变化相互协作，使韩国电影迎来了爆发式的发展。然后我们来看看韩国电影。在当时上映的韩国电影有1999年的<Swiri>、2000年的<Joint Security Area>、2001年的<朋友>、2002年的<My Wife Is Gangster>、2003年的<Memories Of Murder>和<Silmdo>、2004年的<TaeGukGi: Brotherhood

Of War>等超特级人气作品不断出现。不仅是产业的兴复，由林权泽导演执导的韩国电影<醉画仙 (취화선)>在2002年戛纳国际电影节中获得最佳导演奖。2003年朴赞郁导演凭借<old boy>这部电影获得了评委大奖，提高了韩国导演在海外的地位。

另外，最近韩国还上映了一部叫做<寄生虫>的电影。该作品是2019年由奉俊昊导演执导的。这部电影作品讲述了截然相反的两个家庭之间的故事。主要描述了贫富差距和两极分化导致的阶级与阶层断绝的故事。这部电影在2019年戛纳电影节中获得金棕榈大奖，这是韩国电影100年历史上一个重要的里程碑。在2020年2月举办的第92届奥斯卡颁奖典礼上该片又获得了作品奖、导演奖、剧本奖、国际长篇电影奖等4个奖项，创造了历史性的壮举。另外<minari>这部电影是Lee Isaac Chung导演的作品，该片讲述了定居在美国的韩裔移民者的故事。Lee Isaac Chung导演是在美侨胞。该片讲述了1980年代中期有着美国梦，希望可以移民到美国阿肯色的韩裔家庭的故事。该片于2020年2月在美国The Sundance电影节中荣获最高奖项——评委大奖，是在美国国内各种影评家协会中接连获奖的非常优秀的一部作品。据说这部剧共获得超过60多个奖项。另外，这部电影于2021年1月，在被评价为“预备奥斯卡奖”，在公信力获得民众认可的美国电影研究所AFI中，被选为“2020年年度电影”之一。另外在2021年3月举办的第78届金手套奖颁奖仪式中获得了最佳外语电影奖。出演<minari>的演员尹汝贞获得了奥斯卡最佳女配角奖，受到了公众的关注。# 我们来看一下有关韩国电影的视频吧？

视频：在电影之城与韩国电影相遇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3841>

第4课时 | 韩国色彩表达的文化意义

这节课我们来看看关于色彩的表达。色彩表达是用来表示色泽或颜色的词。韩国语中的基本色彩表达属于韩国语的固有词。分别有“黑色、白色、红色、蓝色、黄色”这五种。在这里我们可以发现韩国人意识中，色彩表达的一个最重要的特点。我们先来看汉语和英语中的“青”和“绿”、“blue”和“green”两个单词分别指两种不同的颜色，但在韩国语中“青”和“绿”都用“绿色（푸르다）”这个词来表达。韩国语中有“山和树都是绿色的，江和海也都是绿色的”这样的表达。从这里我们可以学习到“绿色（푸르다）”这个单词。如果我们去韩国的古宫或寺庙，会看到很多美景。这是因为我们可以看见很多的韩国色彩。从瓦片到屋顶、色彩华丽的丹青、柱子和窗户的颜色都体现了韩国色彩。

那么韩国色彩是指什么呢？韩国色彩是以阴阳五行的宇宙观为基础，主要有赤、青、黄、白、黑等五正色和红、碧、绿、硫黄、紫等五间色共10种颜色。韩国人在使用颜色时，比起视觉上的色彩，更注重某种观念上的意义。事实上，东方的这种阴阳五行的宇宙观不仅以色彩为基础，还以韩国文化为基础。阴阳是形成宇宙的基本原理，五行是表现阴阳的方式，用这种方法将五行解释为木、火、土、金、水五种原理。阴阳五行的色彩体系是由东西南北中这五方构成的。五方对应着五种正色，每个正色之间还有五种间色。在阴阳五行中五种纯粹的基本颜色我们称之为正色，正色和正色之间的混合的部分我们称之为间色。正色由东边的青色、西边的白色、南边的赤红色、北边的黑色和中间的黄色构成。间色由东边的青色和西边的白色之间的碧色、南边的赤色和西边的白色之间的红色、北边的黑色和中间的黄色之间的硫黄色、北边的黑色和南边的赤色之间的紫色等五种颜色构成，一共十种颜色，韩国人认为这十种颜色是维持宇宙秩序最重要的部分。韩国在传统上喜爱明亮且淡雅的颜色，在韩国的寺庙或者古宫中，人们会通过丹青描绘与自然同化的静态形象，并在其中营造出色彩明亮的氛围。也就是说，韩国的形象，韩国色彩形象是被自然同化、顺应自然的颜色。

接着我们来看看明亮淡雅的韩国色彩都有什么。首先是丹青。人们会在建筑的墙上或者天花板、柱子上画画或者画各种花纹并上色。一般会使用5种正色作为基础颜色，按照五行规则进行上色。蓝色表示木，红色表示火，黄色表示土，白色表示金，黑色表示水。这里也包含着季节的含义。蓝色表示春天，红色表示夏天，白色表示秋天，黑色表示冬天，黄色表示换季期。因此，按照“五行说”绘制的丹青包含着宇宙万物相互融合、展现灵动气息的含义。

蓝色按照方位来看相当于太阳升起的东方，按照季节来看相当于万物复苏的春天，象征着纯洁的生命。这个颜色也象征着五行中的木，就是指树木，也象征蓝天和茂盛的植物等。蓝色被视为和红色一样，是能够驱赶霉运、祈福的颜色。

红色按照方位来看代表温暖、万物生长的南方，按照季节来看代表夏天，在五行中代表火，是太阳、火、血等的象征。因为红色是充满生命力的颜色，所以它被认为是最强烈的颜色，象征着人体的心脏、五官中的舌头、味道中的苦味。这个颜色和蓝色一样，被认为是驱赶坏运气中最具有代表性的颜色之一，在日常生活中，红色也多用于符咒、法术。黄色处于中间的位置，它代表四季是互相关联在一起的，在五行中属于最珍贵的颜色，是皇帝使用的颜色。

黄色是宇宙的中心，意味着包容一切、调和万物的土地。白色相当于秋天，与西边相关，象征着纯洁、廉洁等。白色是符合韩国人，特别是朝鲜人民的心性和性格的，从三国时期开始就备受人们喜爱。在韩国，白色是最常使用，人们最喜欢的颜色。白色也是所有颜色中最明亮的颜色。所以它也被认为是神圣的颜色。黑色代表北边，代表冬天，象征着隐秘、深刻，象征着人体的心脏或五官中的耳朵，也象征着咸味。这种传统色彩的影响也存在于韩国人的生活中。从韩国语中颜色的名称来看，韩国人在颜色



의前面加上"순, 새, 싯, 시"等代表单纯的前缀, 例如갯노랑다(深黄), 这就是五方正色。

韩国的物质文化反而更复杂, 更精巧。据说, 在朝鲜时代的每一样婚礼用品都是被定好颜色的。公公婆婆在餐桌上应该先吃什么颜色的食物都是有规则的, 真是令人吃惊。同学们在韩国旅游的时候, 可能会去古宫、寺庙等地方参观。韩国人在这裏涂的每一种颜色都包含了深刻的含义, 其中也包含了一些世界观。如果把在古宫或者寺庙中看到的每一个图案、每一个颜色都看作是韩国的文化遗产, 我认为, 这样能以文化的观点看到更深刻的人文文化。# 让我们通过视频了解一下首尔的象征色吧。

视频: 首尔的调色板, 丹青和汉江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7026>



第5课时 | 总结以及收尾

同学们，我们今天学习了韩国的艺术文化。也学习了韩国的传统音乐——阿里郎、盘索里和四物游戏。此外还学习了韩国的传统美术、书法、工艺，还有同学们关心的戏剧、音乐剧和电影。最后我们还了解了韩国人喜欢的韩国文化中的色彩表达。这节课的内容有点难吧？可能看起来有点偏哲学的领域。希望同学们可以思考一下这些艺术文化与自己国家的艺术文化有什么不同点和相同点。我们今天探索了韩国语中所包含的文化，现在来一起总结一下文化当中出现的单词。首先我们来看音乐和舞蹈方面的“国乐、西方音乐、旋律、节奏、乐器、器乐、声乐、盘索里、梵舞、民俗舞蹈、新舞蹈”老师读的时候希望大家能跟读。老师再读一遍。

国乐、西方音乐、旋律、节奏、乐器、器乐、声乐、盘索里、梵舞、民俗舞蹈、新舞蹈。

接下来来看看关于美术的单词。

韩国画、绘画、书法、雕刻、工艺。

我再读一遍。

韩国画、绘画、书法、雕刻、工艺。

然后是关于韩国戏剧和电影的单词，

歌舞百戏、假面、山台游戏、假面剧。

再来读一遍，

歌舞百戏、假面、山地游戏、假面剧。

接着我们来看关于色彩表达的单词。这个部分有点难。同学们可以当作兴趣来了解，请跟老师一起读。

深黄、鲜红、微微发绿。

再来读一遍。

深黄、鲜红、微微发绿

下节课我们会学习关于韩流的内容。韩流是包含了韩国大众文化、与韩国相关的内容。特别是韩流在国外受人欢迎的现象。大家对韩流文化都了解多少呢？下节课我们来一起了解韩流和韩国的大众文化。





那我们今天的课就到这里。同学们辛苦了。我们下节课再见。谢谢大家。

